

ISSN 1277-1489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RESEARCH

TEXTBOOK

교과서 연구

2014. 06. 제 76호

특별기획.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I)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두클래스는 초·중·고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
두클래스



Douclass

교실 수업 자료의 모든 것, 두클래스

- 풍부한 학습자료
- 쉽고 편리한 스마트 수업

두클래스란? 선생님들께 무료로 제공되는 교실 수업 지원 사이트입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

- 집중이수제 취지에 맞는 수업 지원
- 수준별 학습 가능
- 방과후 수업 대응 가능

편리한 스마트 수업

- 교실 특성에 맞춘 과목별 디지털 교과서 제공
- 선생님의 개인별 맞춤수업 교안 작성 가능
- 다양한 수업 모형 제공

풍부한 학습자료 제공

- 교과서, 지도서, 이미지, 멀티미디어, 동영상 및 사진 13종 검색 가능
- 문제은행 서비스 제공
-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과목별 콘텐츠 제공

대상 : 초·중·고등 선생님

- 초등: 음악, 미술, 체육, 실과, 독도, 창의적 체험활동 등
- 중등: 전과목
- 고등: 국어, 문학, 영어, 실용영어, 수학,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와 벡터, 한국사, 한문, 기술·가정, 운동과 건강생활, 스포츠문화, 진로와 직업 등



교과서 연구
계간지
2014년 여름
통권 제76호

목 차

권두언

04 교과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 선종근

특별기획 ·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I)

- 10 좋은 교과서에 대한 소고 / 김윤기
- 14 학생들의 실제 삶을 담은 국어 교과서 / 이재승
- 18 '좋은' 사회 교과서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 / 곽혜송
- 23 이제는 과학 교과서에 투자 좀 하자 / 정진수
- 29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적합성 비교 / 신학수
- 35 현행 영어 교과서의 한계와 개선 방향 / 이병민
- 40 좋은 음악 교과서의 조건 / 김대원
- 45 좋은 교과서는 어떻게 개발되나 / 조준형

현장교육

52 교실 안의 ADHD.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 김고은

제언

56 교과서 동시 선정의 뒷이야기와 문제점들 / 박두순

연구논문

60 초·중등 영어교육 연계성 확립 방안에 관한 고찰 / 서혜진

국제동향

66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 남상구

명사 초대석

73 교과서 미신(迷信) / 함수곤

교과서 편집자의 변

77 교과서와 함께 크는 아이들 / 김순자

탐방

81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 두산동아 정진욱 사장

독자의 소리

88 이 책을 보면 그분이 생각난다 / 김현진

교과서 사랑 수필 공모 작품 소개

- 90 고등학교부 수상작 / 박서정 · 김진솔 · 김수현
- 98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 99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101 원고 모집
- 102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발행일 · 2014년 6월 1일 | 등록번호 · 서초 바 0006호 | 발행인 · 선종근 | 편집기획위원장 · 김만근 | 편집기획위원 · 김병규, 김윤기, 김정호, 이화성, 홍후조, 홍미화 | 편집기획 간사 · 유순기 | 발행처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 우137-80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47 | 전화 · 02-2651-1953, 02-6206-6357 | 팩스 · 02-2651-1982 | e-mail · editor@textbook.ac http://www.textbook.ac | 표지디자인 · 김윤철 | 디자인 · 신성인쇄상사 02-2272-0345 | 인쇄 · (주)미래엔 02-3475-4092

*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의 내용은 편집진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선 종근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

지금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 중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취를 이룬 것은 여러 요인에서 기인하지만, 가장 주요한 요인이 교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수긍한다.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 국가 등은 모두가 인정하지만,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도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교과서이다.

내 개인적으로는 교과서는 교재 그 이상이었다. 어머니 품을 벗어나, 학교에서 맨 처음으로 접한 교과서는 내가 모르는 다른 세상을 보는 창구가 되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된 ‘성현들과 위인들의 가르침’, 국어 교과서에서 ‘주옥같은 우리의 명시, 단편’ 등이 소개되지 않았다면, 나 혼자 힘으로 그 ‘가르침과 명시들’을 접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교과서는 수업에서 교재 그 이상으로 나의 인생에서 나침판 역할을 한 소중한 책이었다.

1948년 독립한 우리는 제헌 헌법(제16조)부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부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 5일, 당시 문교부(초대 편수국장 최현배)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바둑이와 철수’라는 국어 교과서를 저작·발행하였다. 이 교과서는 첫 단원에서 끝 단원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가는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엮어낸 최초의 본격적 우리말 우리글 국어 교과서이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교과서 제도는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최근의 ‘2010 교과서 선진화방안’을 계기로 인정도서가 대폭 확대되어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책도 바뀌고 있으며, 현 정부가 내세운 교육 목표인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과 함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교육에서 다양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자율과 다양성을 기치로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변하는 교과서 제도를 바라보면 ‘바둑이와 철수’로 시작된 교과서의 비약적 발전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교과서 편찬의 자율화는 교과서의 질(質)적 저하(低下)나 교과서가 이념적 논쟁, 정치 쟁점화 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정부적 차원에서 동시에 요구된다.

또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경우 도리어 혼란이 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정도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서 선정 업무가 많아진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교과서의 자율성·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대된 인정도서 제도가 교육과정보다 교과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초·중등 교육법 제29조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한다”라고 규정,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무조건 교과서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서 제도 개선에 따라 모든 전문교과들이 인정도서로 전환되었지만, 급격한 자율화와 함께 진행되다보니 수요가 많지 않은 교과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국고 보조금을 받아 200여개가 넘는 과목을 분점하여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교과서들은 국정으로 개발되어 교사들은 ‘국가가 주는 교과서’를 사용하면 되었다. 따라서 교과

서는 정부가 개발해서 학교현장에 제공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변화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정교과서 제도의 장점은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적극적, 자발적 참여가 요청되며 참여를 유발하는 교과서 관련 연수와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교과서 인정도서 제도를 확대하는 정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과서와 수업을 기대할 수 없다. 프랑스의 경우, 자유 발행제를 실시한 후부터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교과서는 신성불가침의 내용을 담은 경전(經典)이 아니라 유연하게 활용되어야 하는 하나의 수업자료라는 인식이 현장에서 확산되도록 하면서, 정부는 ‘거시적 차원의 국가교육과정’만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해야 제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2009개정 교육과정의 인정도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국정도서에 비해 질이 저하됐다는 현장의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인정도서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기관 감수제 실시,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 수시 수정·보완 체제 마련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와 정책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급격한 민주화, 자율화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교과서에 관해서는 아직도 경전(經典)으로서의 교과서관(教科書觀)이 상존한다. 즉 교과서는 자유롭게 편찬, 발행되어야 하지만, 교과서의 오류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독특한 교과서관이다.

이와 같은 교과서관을 만족시키면서 자율화·다양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경우 이미 1990년대에 대부분 교과서 제도를 혁신하여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신 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해 오류가 있을 경우 1992년 미국 텍사스 주와 같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보다는 국가와 발행사가 협력하여 오류를 시정하고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유럽형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교과서의 오류는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도서 확대에 따른 교과서 오류수정을 위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부의 지원으로 교과서 모니터링단 운영,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정책연구 등 교과서 정책, 제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 14일에 문을 연 교과서 민원 바로처리센터(TIOS;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 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는 개통이후, 금년 3월 31일 현재 약 39만 명이 TIOS홈페이지를 방문하였으며, 약 10,000 여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다. 이 센터 운영을 통해 교과서에 관한 모든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교과서와 관련된 정보를 학부모와 학생, 지역 사회 등 교육 수요자들은 물론 교과서 발행사, 교육 기관 등 공급자에게도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교육 수요자와 공급자의 관심과 참여도 높아졌다.

요즈음만큼 교과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적은 별로 없었다. 얼마 전에는 역사 교과서 내용 때문에, 최근에는 교과서 가격 때문에 연일 교과서 관련 문제와 해결책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바람은 모처럼 교과서의 중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 구성원-교과서 공급자와 수요자, 정부기관, 사회단체 등-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교과서가 한 단계 질적으로 승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특별기획.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I)

- △ 좋은 교과서에 대한 소고
- △ 학생들의 실제 삶을 담은 국어 교과서
- △ ‘좋은’ 사회 교과서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
- △ 이제는 과학 교과서에 투자 좀 하자
-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적합성 비교
- △ 현행 영어 교과서의 한계와 개선 방향
- △ 좋은 음악 교과서의 조건
- △ 좋은 교과서는 어떻게 개발되나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가?”

누구나 설명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이 주제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는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가, 교육학자, 편집 전문가,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요컨대 교과서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교과용도서 편찬방향’을 통해 밝히고 있는 목표, 기본방향, 유의점, 그리고 검인정 기준의 심사 관점 등은, 사실은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관점과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에 지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본지에서는 다시 새로운 교육과정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다양한 제안을 들어보기로 하고, 이번호에서는 먼저 교과서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논의의 관점으로 필요할 경우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 연계성을 중심으로 하여 교원, 학자, 행정가, 편집자의 견해를 모았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교과서를 활용하고 적용하는 입장에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소고



김 윤 기
교육부 교육연구관

1. 들어가는 말

교과서에 대한 정의는 의외로 다양하다. 가장 쉽게 접하는 것으로는 ‘학교에서 교과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으로 국어사전에 나온 말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정 중심의 해석으로서, 교육과정에 나온 학습요소들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고 빠짐없이 구현해 놓은 책이란 의미가 강하다. 다음으로 법령에서 교과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 음반, 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 주는 딱딱함처럼 하드웨어적 규정에 가깝다. 다른 정의로 교과서는 해당 분야의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바른말만 적어놓은 책이란 의미로 쓰여 부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교과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가 ‘좋은 교과서’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은 교과서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하는 점이다. 사실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교과서를 만들고 싶어한다. 이는 현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이처럼 좋은 교과서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지만, 사람마다 좋은 교과서에 대한 환상(?)은 다를 수 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와 출판사가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가 다를 수 있으며, 가르치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과서와 배우는 학생들이 느끼는 좋은 교과서도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좋은 교과서라면 좋겠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럼 누가 좋다고 느끼는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과서일까 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과서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교과서란 학교교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즉 교과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이 좋다고 느끼는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과

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교육 수요자들에게 좋은 교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던 점과 오늘날 좋은 교과서를 위한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조선시대의 좋은 교과서

조선은 알다시피 성리학을 기반으로 통치가 이루어진 국가다. 과거제도를 통해 관료를 뽑고 그들로 하여금 국가를 통치하게 했으며, 사농공상의 직업적 차별 인식에 따라 과거를 통한 입신양명을 삶의 목표로 공부한 이가 많았다. 하지만, 과거급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려운 사서삼경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 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를 목표로 공부하는 양반들에게만 성리학적 덕목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회 유지와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 확산을 위해 일반 서민들에게도 성리학적 덕목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서민에게도 부모에 대한 효(孝)나 형제간의 우애(友愛) 또는 부부간의 신의와 같은 덕목을 가르쳐야만 했다.

따라서, 문자해독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고 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삼강행실도 같은 도설류 책이다.¹⁾

도설(圖說) 또는 도해(圖解)란 어의적으로 보면 그림을 그리고 이에 설명을 붙인 것을 의미한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도(圖)란 ‘그러서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

으로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것이다.²⁾ 도와 비슷한 용어로 쓰이는 표(表) 역시 ‘밝히어 드러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³⁾ 과거 표의 의미는 글의 표현양식의 하나로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글의 종류로 사용되었다.

도설의 양식은 성리학의 수용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다. 문자로만 이루어진 설명방식에서 벗어나 그림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설은 중국보다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일반적으로 최초의 도설은 염계 주돈이(1016-1073)의 태극도설(太極圖說)로 삼는다. 유학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만물 생성의 진수를 하나의 그림으로 집약하고 해설한 것이다.⁴⁾ 조선에서 도설은 권근의 입학도설을 최초로 삼는다. 그 후 정지운의 천명구도, 퇴계의 천명신도와 성학십도, 이이의 심성정도·인심도심도설, 조식의 학기도, 윤희의 제1도인 제순인심도심도에서 11도인 태공단서 경의지도, 양명학자로 알려진 정제두의 양지도·대학 경문이절도·중용양절도 등이 뒤따른다. 이들 외에도 한원진, 김석문, 황윤석, 이항로, 이진상 등 한 시대를 풍미한 학자들은 도설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피력했다. 한편 정통성리학자이자 퇴계학으로 일컬어지는 성리학체계를 이룩한 퇴계에 의해 도설이 유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의외다. 퇴계 이전의 권근이나 정지운 등이 도설적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도식화했다면, 퇴계는 나이 어린 선조가 공부하기 쉽게 성학십도를 짓고 드리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설이 유행하게 되었다.

구성적 측면에서 도설은 그림과 설명으로 이루어져

1) 군왕을 위한 도설류도 있다. 학문적 이해의 어려움은 군왕(君王)이라도 별 차이가 없기에, 이황은 어린 선조에게 성학십도를 올려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키고자 했다.

2) 『說文解字注』, 許慎撰, 段玉裁注, 畫計難也. 上海古籍出版社 1981

3) 문체(文體)의 하나.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글을 말하는데, 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발표한다는 뜻임.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글도 표(表)라 하며, 흔히 경하(慶賀)할 때 썼음. 설문해자에 의하면 밖에 입는 옷을 칭하였다. 『說文解字』. 上衣也. 上衣者 衣之在外者也. 출사표같은 경우가 대 표격임.

4) 성리학에서 태극(太極)은 존재의 형이상학으로 궁극적 근거이자 현실적 질서와 조화를 가능케하는 근거로서 궁극자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퇴계의 성학십도에서도 태극도설을 처음에 위치시키고 있고, 율곡의 성학집요 역시 궁리장에서 태극을 가장 먼저 논하고 있다. 이경향, 『태극도설의 철학적 이해』,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2-3.

있지만, 주된 표현 방식은 그림이고 설명은 그림을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이다. 이는 그림을 앞에 놓고 설명을 뒤에 붙인 것에서나, ‘설도’라 하지 않고 ‘도설’이라 이름붙인 것에서도 그림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교과서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삽화 등이 글을 설명하고 보완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면, 도설의 제작 의미를 참고할 만하다. 한편 우주론에서 인성론에 이르기까지 형이상학적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 성리학 체계를 도표로 나타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게는 수십 쪽에서 수백 쪽에 이르는 설명을 간결한 그림을 통해 구조화시켜 설명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보다 좋은 교과서임에 틀림없다.

3. 오늘날 좋은 교과서를 위한 노력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새로 편찬되는 교과서는 각 교육과정기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에 따라 변화해왔다. 다시 말해 더 좋은 교과서⁵⁾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진화해왔다. 2013년 초등 1~2학년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정책의 방향은 ‘다양성과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좋은 교과서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정 교과서 외형체제를 자율화하고 검정정 도서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e-교과서를 포함한 전자 저작물을 통한 교육을 확대하였다. 최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지식체계

와 향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야 할 미래 인재의 역량을 생각한다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학습 분량의 증대와 교과서 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불러왔다.

이러한 반성에서 향후 교육과정에 적용할 교과서 편찬을 위해 좋은 교과서에 대한 본질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그리고 향후 좋은 교과서 편찬의 출발은, 많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적하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많을 뿐만 아니라 재미없다”는 지적의 겸허한 수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될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으며, 핵심내용 중심으로 편찬되어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여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 중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학습해야 할 부분을 핵심성취기준으로 선정하여 교과서 제작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 더 비중을 두는 것도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현재 획일적으로 모든 차시의 분량 비중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에서 벗어나므로써 교과서 집필과 편찬에도 자율성이 증가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에 시범적으로 핵심성취기준을 선정하고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차기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례로 교육과정이 산출된 이후 핵심성취기준을 선정하다보니 학자들에 따라 핵심성취기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이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육과정 개정과 동시에 핵심성취기준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직하다.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학습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이 찬란한 빛이라면,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5) 최근 좋은 교과서에 대한 논의로 이정기의 주장은 의미있다. 이정기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크게 세가지를 제안하는데, 첫째, 가르치고 배울 학습량은 줄이고 융합적이고 심화된 내용 중심의 교과서, 둘째, 수업하기 쉽고 평가가 용이한 교과서 셋째,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한 교과서라는 것이다. 『교과서 연구』, 74호, p58

것은 어두운 그림자다. 사교육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생각처럼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과서 내용의 어려움도 사교육 열풍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실제 학기 초 참고서 구입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해 문제집 구입도 서민입장에서 적은 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교과서만으로 완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참고서가 필요없는 친절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 정보 압축형 교과서에서 벗어나 교과서만 가지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풍부한 읽을거리와 참고자료 나아가 평가문항까지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과도한 분량 증대 문제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와 함께 교과서 가격 인상 문제도 적절한 해결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좋은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교과서가 잘 만들어진다고 해도 평가문항이 교과서 외에서 출제된다면 그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와 평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지만, 교과서 내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때 문제는 평가의 변별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평가방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필평가 비중을 낮추고 보고서를 포함한 수행평가나 활동중심의 평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최근 ‘비정상적 정상화’란 말이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익숙해져 있지만 비정상적인 것을 새로이 본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겠다는 말이다. 사실 좋은 교과

서에 대한 관점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각 나라마다 교육여건과 생활환경이 다르고 겪어온 역사적 전통이 차이 나는 환경에서 어떤 나라의 교과서 제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으니 무조건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좋은 교과서란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아닌 학생 중심의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2차적이며, 교과서를 편찬하는 집필진도 학생보다 앞설 수 없다. 이는 에리히 프롬이 제도의 유지나 체제의 성장보다 그 제도의 대상을 중요시 여겨 ‘무엇이 체제의 성장을 위해 좋은 것이냐’보다 ‘무엇이 인간을 위해 좋은 것이냐’를 추구해야 한다⁶⁾는 주장과 일맥 상통한다.

최근 정부가 핵심성취기준 중심의 교과서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초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역사), 수학, 과학, 영어 등 7개 교과와 중학교에도 같은 과목으로 7개 교과 시범단원 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 선진화된 교과서 전문 출판사도 있어야 하고, 교과별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내용 오류에서 최신 이론의 적용까지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집필진과 디자이너 등도 한 팀이 되어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좋은 교과서 한 권을 편찬하기 위해 온 나라가 나서야 할 때다.



6) 에리히 프롬, 『소유냐 존재냐』. 범우사 1985.

학생들의 실제 삶을 담은 국어 교과서



이재승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좋은 국어 교과서의 조건

흔히 교육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든다. 교사, 학생, 교재가 그것이다. 여기에서 교재의 핵심은 교과서이다. 교육 장면에서 교과서가 없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은 어렵다.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매개해 주는 주된 통로이다.

교과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국어 교육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고 교수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교과서는 평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이 연습을 통해 배운 것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교과서가 이러한 교과서의 여러 기능들을 충실히 담보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지, 교육 내용이나 활동, 제재 등에서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학습량은 적당인지, 오류는 없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의 경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실제 삶을 담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과서의 제재나 활동 등은 학생들의 실제 삶에서 언어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실제의 삶에서 언어가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는 점이다.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가, 제재나 활동 등은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은 결국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현재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정 교과서 체제를 취하고 있어서 단일 교과서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검정 교과서 체제를 취하고 있어서 출판사 별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현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새 교과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리고 좋은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서 교과서가 학생들의 실제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 교과서를 배우면 실제 삶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

<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반영한 교과서 >

현재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학습 양식이나 흥미, 관심 등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제재나 활동을 선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접하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제재를 선정함으로써, 교실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 등이 실제 학생들의 삶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1단원을 보면, ‘구름 빵’이라는 만화 영화를 보고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활동이 있다.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만화 영화를 좋아한다는 점, 그리고 만화 영화 중에서 특히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만화 영화라는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만화 영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는 교과서 >

국어 교과서가 학생들의 삶과 관련짓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가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재나 활동 등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교과서의 2단원을 보면, 글 쓰기가 경험한 일을 알아보는 단원이다. 이 단원에서 운동장에서 축구한 내용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적극 관련지어 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단원에서 가족의 생일에 대한 글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일 경험을 떠올려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장르면에서 보더라도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일기나 편지 같은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삶과 관련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활동이나 제재, 장르 등에서 현재의 교과서는 학생들의 삶과 관련지으려는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 언어 행위의 맥락을 반영한 교과서 >

언어 행위는 항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언어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의 맥락(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재 및 학습 활동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저학년에서 상황 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말하기나 글쓰기 과제를 제시할 때 주제, 목적, 독자 등이 뚜렷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학년 1학기 8단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편지를 쓰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삶에서 있을 법한 독자와 글쓰기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같은 책 10단원을 보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말해 보게 하는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학 온 친구에게 말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학생들의 삶에서 있을 법한 언어 행위의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생활 속에서의 실천을 강조한 교과서 >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실천을 위한 것이다. 언어 활동을 통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해야 한다.

새 교과서를 보면, <국어 활동>에서 ‘생활 속에서’라는 꼭지가 있다. 보통 2차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학습 활동(또는 목표)은 주로 생활 속

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문제가 중심이다. 꼭지명을 ‘생활 속에서’라고 제시한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의 단원별 내용에서는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4단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고운 말을 익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여 봅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고운 말을 배우는 것과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국어 교과서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국어 교과서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어야만 국어 학습에서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내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교과서에서는 학습 방법 안내 기능을 강화한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지식이나 개념, 원리 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습의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학습의 과정을 따라가면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모범이 될 만한 글을 예시 텍스트로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학습 도우미 장치를 활용하여 학습을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의미가 있다.

<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풍부한 교과서 >

언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 역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배운 것이 삶 속에서 실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일련의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협의, 토론 등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교섭적 학습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학생들 사이의 상호 작용과 상호 보

완을 통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9단원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그것을 역할 놀이로 표현해 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역할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한 편의 글을 쓴 다음에 친구들과 바꾸어 보게 하는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언어 사용의 태도를 강조한 교과서 >

언어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필요한 지식, 기능, 전략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태도 측면을 강조해야만 학생들의 삶 속에서 올바르게 언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에서 ‘태도’ 범주를 설정하여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태도는 특정 단원, 특정 차시만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 단원, 매 차시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물론 개별 단원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한 단원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 5단원을 보면, 삶에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시 읽거나 그림 책 읽기를 좋아하는지, 시나 그림 책을 읽은 다음 다른 사람들과 말하기를 좋아하는지 확인해 보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자신의 언어 생활을 반성하고 실천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좋은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학생들의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 교과서로 배우면 실제 학생들의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교과서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좋은 국어 교과서가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으로는

이 외에도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 측면, 학생들의 발달 측면에 대한 고려, 학습 분량 문제, 학습 내용의 정확성도 중요하다. 그리고 국어 교과서 간(국어와 국어 활동)의 연계성이나 학년별 위계성(또는 연계성)도 중요하다. 또한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공정성 또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성 평등 문제나 다문화 문제 등도 국어과의 직접적인 학습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재나 활동을 구안할 때 고려해야 할 점 중의 하나이다. 일부 단원에서 학습량이 과다한 문제나 ‘국어 활동’ 교과서의 학습 부담 과중 등의 문제가 없지 않으나 현행 교과서는 대체로 무난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새 국어 교과서의 지향점

이전 교과서에 비해 현행 교과서는 좋은 국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상당 부분 더 많이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교과서 개발 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의 언어 생활의 다양한 장면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사용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언어 생활에서 드라마 보기, 친구들과 일상의 대화 나누기, 공부 시간에 발표하기, 부모님께 부탁하기 등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을 제재나 활동쪽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 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쓰기 주제를 제시할 때 고답적인 주제보다는 학생들의 쓰고 싶어 하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2학년 1학기 1단원을 보면 제재면에서 자전거를 소

재로 하고 있고 기초적이지만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부모님께 편지쓰기나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담은 편지쓰기가 교육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어 보이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학생들은 애완동물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알리는 글쓰기를 더 좋아할 수 있다.

셋째, 삶 속에서 언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 교과서에는 일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고, ‘국어 활동’에서 ‘생활 속에서’라는 꼭지를 두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단원에서 일회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 말미에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할 언어 생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수시로 확인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개별 단원 내에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대구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현)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2009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책임
저서: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사회 교과서 만들기, 무엇이 필요할까?



곽혜송
서울 상봉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기

교과서는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라는 문제의 해결 방식이다. 집필자의 편에서 보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교과 내용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집필자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교과 내용의 수준과 범위, 그에 따른 소재 및 자료를 결정하는 등 ‘무엇을’의 문제에 관여한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내용 구성 방식의 문제에서도 그러하다. 교과서 개발 연구진들로부터 주어진 내용 구성 방식을 이해하여 지면에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일은 온전히 집필자의 몫이다. 이렇듯 집필자는 교과서 개발이라는 큰 작업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필자는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비추어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갖추어져 할 것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좋은’ 교과서를 분명히 정의내릴 수 없으나 ‘좋은’ 교과서는 필요조건들의 어울림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다. ‘좋은’에 대한 판단은 개인적인 것이나, 교과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형성된 집단의 사고 과정을 거쳐 온 ‘좋은’ 교과서에 대한 나름의 판단은 개인적이면서도 개인적이지 않다.

2. 왜 배워야 하는가에 답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필자는 사회 3학년 1학기 3단원, 4학년 2학기 1단원¹⁾의 한 부분을 맡아 집필하였다.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필자가 맡게 된 단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것, 즉 단원의 설정 취지에 공감하고, 성취기준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 및 개념을 읽어내는 일이었다.

1) 현재 4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의 정본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험본의 단원 순서 및 내용을 기술하였다.

3학년 1학기 3단원의 주요 개념은 ‘중심지’ 하나이다. 교육과정에는 중심지의 특징과 위치, 중심지 역할의 변화, 새로 생긴 중심지와 기존 중심지의 비교 등 중심지에 관한 내용을 4주제에 걸쳐 알아보도록 되어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6개 성취기준 중 하나였던 ‘우리 고장의 중심지 중 특징적인 곳을 선정하여 견학해 본 후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 입지 조건, 경관의 특징, 역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조사한다.’를 더 깊이 배우게 한 셈이다.

필자와 함께 3단원을 쓰는 집필자들의 첫 질문은 ‘중심지’를 왜 배워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원 설정의 취지, 즉 교과 내용 선정의 근거를 묻는 일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중심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설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내용 선정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전과 달리 교육과정 해설서가 없는 형편에서 교육과정 개발진의 의도를 짐작하여야 했고, 납득할 만한 것을 찾아야 했다. 그리하여 ‘1단원에서는 고장의 자연 환경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데, 핵심은 ‘환경과 생활’이다, 고장의 이동 수단과 의사소통 수단을 알아보는 2단원의 핵심은 ‘교류’이고, 3단원에서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형성된 중심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연스럽다’와 같이 단원 순서에 맞게 흐름을 잡았다. 이 또한 ‘중심지를 왜 배워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것은 되지 않는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중심지를 찾아 기존의 중심지와 비교해보도록 한 학습 내용은 새로운 중심지가 없을 경우에는 학습할 필요성도, 의미 있게 학습될 여지가 많지 않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교과 내용 선정의 정당성이 집필자에게조차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명시되기까지 교과 내용

의 교육적 유의미성은 마땅히 고려되었을 것이고, 이는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집필자를 포함한 교과서 개발진에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 그 래야 교육과정의 의도가 집필자에 의해 보다 잘 실현되고, 수업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성취기준에 대한 공동의 해석

교육과정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은 ‘중심지에 관한 학습 내용의 양이 한 단원이 될 만큼 충분할까?’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원고를 집필하는 단계에서 부딪치는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다. 교과서의 단원, 주제, 차시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은 일정한 지면에 표현되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내용의 과다 또는 빈약이 예상된다면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학기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3학년 1학기 3단원은 교과서에서 4개의 주제에, 각 주제를 3차시로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성취기준으로 보면 하나의 성취기준에 3차시 분량의 학습 내용이 확보되어야 했다. 그러나 3단원의 성취기준은 최소한의 지면을 채우는 것도 어려울 만큼 그 내용이 빈약하였다. 예를 들어 새로 생긴 중심지와 기존의 중심지를 비교하는 내용의 성취기준은 고장에서 새로 생긴 중심지를 찾아보는 것, 그리고 그 중심지와 기존의 중심지를 비교하는 것, 딱 두 차시 분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차시 동안 학습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중심지가 생기면서 기존의 중심지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내용 및 사례의 중복 문제 또한 3단원 집필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교과서 집필에서 성취기준의 학습 내용을 다른 성취기준의 것과 비교하여 보다 명확히 하

고, 그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며, 이를 구현할 적절한 소재와 자료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중심지라는 미시적 공간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게다가 집필자마다 빈약한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인 내용, 사례 등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내용 및 소재와 자료 등이 중복될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이 일은 더욱 중요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의 4개 성취기준 중 그 구분이 모호해 보이는 2개의 성취기준을 따져보았다. 중심지 중 한 곳을 정하여 옛날과 오늘날의 모습과 역할을 비교하도록 한 성취기준은 시간을 기준으로 한 중심지의 변화를, 새로 생겨난 중심지와 기존의 중심지를 비교하도록 한 성취기준은 공간을 기준으로 중심지의 변화를 알아보는 내용이라는 것으로 각 성취기준의 학습 내용을 이해,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사례의 중복을 피하면서 전형적 사례 고장을 찾아야 했는데, 각 성취기준을 구현할 사례 고장을 찾는 일도 어려웠고, 그렇게 찾은 사례 고장은 다른 성취기준의 것과 중복되어 포기하는 일이 이어졌다. 새로 생긴 중심지와 기존의 중심지를 비교하는 성취기준의 경우, 교통·통신의 발달로 새로 생긴 중심지가 있는 고장을 찾기 위하여 KTX역이나 고속국도 등 역이나 도로가 생긴 고장을 찾아 그로 인하여 중심지가 형성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했다. 아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 사례는 폐기되었고, 기존 중심지와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 또한 폐기되었다. 또한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성취기준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포기하였다. 이런 과정은 중복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집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 하에서 이루어졌다.

교육과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 정신과 목표를 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변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과정 성취기준이 충분히 예상되는 내용

의 과다 및 빈약, 내용 중복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면 그 교육과정은 교과서 개발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과정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집필자들이 성취기준에 대하여 함께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만들어 가는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

교육과정과 더불어 집필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이다. 내용 구성 방식은 교과서 개발진이 지향하는 ‘좋은’ 교과서상의 구현물로서, 집필자가 연구, 구상한 것은 내용 구성 방식을 통하여 비로소 형태를 가지는데 집필자는 그 구조 내에 포섭될 수 없는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소재나 자료를 찾는다.

이번 3, 4학년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교과서 개발 연구진은 집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내용 구성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다. 처음에 집필자들은 나름의 내용 구성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하였고, 전체 교과서 개발진이 모여 이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각 내용 구성 방식이 가진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내용 구성 방식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과정은 집필자에게 자신의 교과서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면서 구상과 표현 간의 간극을 인식하고, 다양한 내용 구성 방식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학습 내용을 다른 내용 구성 방식으로 다시 고쳐 쓰면서 제한된 집필 시간을 소비하고, 집필에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필자는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내용 구성 방식과 관련하여 통용되는 용어의 뜻을 공유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초고를 쓰기 전, ‘좋은’ 교과서상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자리에서 필자를 비롯한 몇몇

집필자들은 이야기 구조의 내용 구성 방식에 동의하였고, 그에 맞게 초고를 썼다. 결과적으로 차시 전체를 동화처럼 풀이한 원고, 다양한 이야기 자료를 활용한 원고, 차시 처음에 짧은 이야기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 원고 등 다양한 모습의 원고가 나왔다. 우리는 이야기 구조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였지만,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였던 것이다. 집필자를 포함한 교과서 개발진이 합의하여 도출한 교과서 내용 구성 방식이라 하더라도 집필자마다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있고, 따라서 내용 구성 방식과 관련 개념에 관하여 철저히 숙고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에 이야기 구조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확인하고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이야기 구조는 단순히 이야기 자료를 제시하여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이 자연스럽게 학습되도록 주제와 주제, 차시와 차시의 내용 흐름을 잡아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야기 구조에 학습 내용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녹여내어, 사회 현상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도입되고 탐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 집필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다. 4학년 2학기 1단원은 경제 영역의 개념과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필자를 포함한 5명의 집필자들은 생활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험을 활용하여 이야기 구조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가상의 학생을 등장시켜 그 학생이 한정된 용돈을 두고 겪는 선택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현명한 소비를 배워가는 과정으로 1, 2, 3, 4주제를 엮었다. 이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큰 무리 없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순서를 조정하는 일, 각 성취기준의 학습 내용을 포함하면서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법한 소재를 찾는 일, 학습 목표와 맞지 않는 이야기 내용을

걸어내고 문체의 통일감을 주는 일 등을 해결해 나가야 하였다. 한편으로 이와 비슷한 방식을 채택했던 교과서가 비판받았던 점, 즉 많은 가공의 인물과 다소 억지스러운 상황의 설정, 학습 내용의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원고의 이야기 구조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사회과에서 이야기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완성되지 않았고, 이야기가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흐름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결국 완전한 내용 구성 방식을 구현하지 못한 셈이다. 이야기 구조의 내용 구성 방식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인 것이다.

내용 구성 방식을 만들어 간다는 말은 해당 교과서 개발 과정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내용 구성 방식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존 교과서의 내용 구성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모색하게 된다. 기존 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내용 구성 방식을 보완하면서 완성해 가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회과 내용 구성 방식은 유형의 다양성 뿐 아니라 깊이를 가질 것이다.

5. 나가기

‘좋은’ 교과서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중시하는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로 인식하는 흐름이 형성되었으나,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형태가 시도되었다. 그 결과물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이 따르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또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필자에게 교과서 집필은 교육과정의 취지를 파악하고, 성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이를 내용 구성

방식에 담아내는 과정이었다. 이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교과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정보와 집필 능력의 부족이었다. 교과서 개발진 전체 회의와 집필자 간의 공식적, 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다소 해소되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교과서 집필에 관하여 이해한다고 하여 이를 제대로 체득하여 표현하는 일은 다른 문제였기 때문이다. 체득은 수많은 시행착오 과정을 겪어야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여러 집필자들의 집필 경험이 공유되고 축적되어 새로운 교과서 집필자에게 계승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교과서 연구에서 교과서 집필 영역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전문적인 집필자들이 양성되길 바란다. 집필자의 역량은 ‘좋은’ 교과서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 구절이 있다. 짧은 집필 경험으로 단언할 수 없으나, 아직 교과서는 ‘너’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자세히 보면 오히려 못나 보이고, 오래 보아도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다. 교과서의 소중한 독자인 교사와 학생들이 교과서를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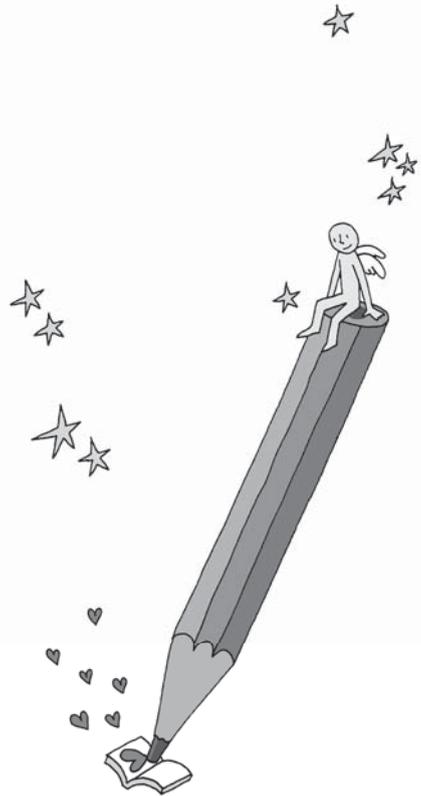
- 곽혜송·홍미화(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초등 사회교과서 개발의 난제와 대안 탐색, 한국초등교육 24(4), 127-145.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등학교 사회과교육과정(별책7)
- 김만근(2000), 교과서관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변화, 사회과교육 33, 309-331.
- 김영석(2007), 사회과 교과서의 문제와 개선 방향, 사회과교육연구 14(2), 1-13.
- 이동원(2011), ‘좋은’ 초등사회교과서: 담론의 계승과 단절을 통한 자기만의 색깔 드러내기, 교과서연구 제64

호, 20-24.

- 진주교육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3·4학년 교과서 집필진 워크숍 자료..

필자소개

서울상봉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7 개정 교과서, 2009 개정 사회과 교과서 개발에 집필자로서 참여하였습니다.



이제는 과학 교과서에 투자 좀 하자



정진수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1. 보기 싫은 과학 교과서

학생이던 시절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수가 된 이후에는 교과서의 ‘모양’을 볼 일이 자주 생겼다. 특히 강의 준비를 위해 어떤 내용을 강조할까, 어떤 순서로 알려줄까 등을 고민할 때에는 책을 이리저리 뒤적이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상한 경험을 했다. 읽기 불편한 영어 원서보다 술술 읽히는 우리말 책들이 더 불편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너무 싸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내 전공은 물리학이라 교과서에 사진, 그림, 수식이 많다. 원서는 상황을 도해하는 그림이나 실생활과 연계된 사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그림만 보아도 “아, 여기는 이 내용이구나” 금방 보인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는 사진은 거의 없고, 그림이나 가끔 나타난다. 사진이나 그림을 쓰면 편집 비용이 올라간다. 매 쪽마다 말로 된 설명과 비슷하게 보이는 수식이 대부분이니 구절구절을 읽어야만 내용이 파악된다.

몇 년 전,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심의위원을 할 때에는 거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다. 심의해야 하는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이것도 교과서라고 만들었나?” 싶었다. “경제대국”이라 자칭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초등학교생들이 진심으로 불쌍했다.

이 문화적 충격의 원인은 두 가지였다. 한 가지는 내용의 부실함이다. “무슨 교과서에 이렇게 내용이 없지?”, “이래 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한 가지는 페이지의 디자인이었다. 도대체 각 페이지의 ‘모양’이 매우 불편해서 쳐다보기가 싫을 정도였다. 왜 그런지 원인을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야 그 원인을 알았다. ‘디자인’ 때문이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를 다룬다. 우선 집필진이 구성하는 책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내용이 부실하다. 그리고 한 시간에 가르칠 내용이 꼭 두 페이지에 맞추어 들어가도록 구성하는 편집도 거슬린다. 그 다음은 출판사가 구성하는 페이지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에서는 그리

드, 서체, 시각 자료 등, 책의 ‘모양’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짚어본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우리 교과서를 “쳐다보기 싫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두 가지를 개선하고, 교과서를 ‘보고 싶게’ 만들려면 투자를 좀 더 해야 한다.

2. 책의 내용

혼자서는 공부할 수 없는 책 : 심의위원으로서 쳐다본 처음 교과서는 도저히 혼자서는 읽고 공부할 수 없는 책이었다. 과학 교과서에는 많은 과학 개념이 나온다. 많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보다 엄밀한 정의를 하고 사용한다. 그런데, 책에서는 새로 나타나는 용어에 대한 한 마디 설명도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사용부터 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용의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었다.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 설명은 하지 않고 질문만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래서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집필진 중의 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칠 선생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이란 과목은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워야 하는 과목”이라는 자가당착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내 머리 속의 교과서는 스스로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책이었다. 교과서란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책이어야 한다. 최근의 과학교육에서는 과학 지식 보다 과학 소양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탐구능력을 갖추고 스스로 지식을 찾아내는 훈련을 강조한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요즘 과학교육의 목표다.

과학적으로 틀린 설명 : 교과서의 초안에서는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 바람이 빠진 풍선과 바람을 불어 넣은 풍선의 무게를 비교시켰다. “부력을 생각하지 않은 설명이라 과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다. 두 번째 심의회에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았다. “위로 올라가는 열기구의 무게는 음수냐?”는 지적에 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세 번째에 가서야 수정을 하였다. 이 내용의 집필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교육대학 입학생의 2/3는 고등학교 때 과학을 거의 배우지 않는 인문계 출신들이다. 과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역지스러운 편집 : 강의를 하다 보면 중요한 개념은 다양한 예를 들며 설명을 하려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잡다한 예시는 읽기로 대신하며 빠르게 지나갈 수도 있다. 초등학교 과학교과서는 이런 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 교과서 전체가 어김없이 ‘1 차시 = 2 쪽’으로 만들어진다. 내용의 경중과 상관없이 한 시간에 딱 두 쪽만 진도를 나가야 한다. 어떤 공간은 더 이상 쓸 내용이 없으니 큰 배경 사진을 넣고, 어떤 곳은 아무 정보도 가지지 않은 아이콘으로 채운다. 이 사진이 왜 여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짜증이 나게 만든다.

3. 페이지의 디자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13년에 교과서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¹⁾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 밝힌 사실 중의 하나는 우리가 교과서의 디자인에 너무 무심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교과서 관련 연

1) 임현우 외, 과학교과서 편집 디자인 분석 개선방안 연구 및 모형개발 (한국과학창의재단 2013-27)

구 4,200편 중에서 20편만 편집디자인에 관한 논문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약간 증가하기는 했으나, 전문 아트디렉터의 참여는 저조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의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도 함께 분석하였다. 내가 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쳐다보기 싫었는지” 그 이유를 시원하게 밝혀주는 연구였다.

가) 그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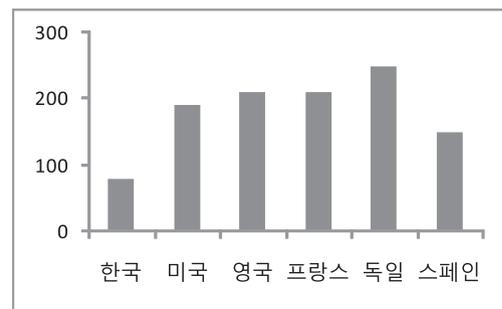
비효율적인 그리드 사용 : 그리드는 평면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조직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평 수직의 보이지 않는 망이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1단 그리드를 사용하는데, 페이지마다 그리드 폭이 조금씩 다르다. 본문이나 사진, 그림의 크기가 페이지마다 달라져서 보기에 정신이 없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그리드의 기계적 적용으로 내용 전개에 따른 다양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 2) 그리드의 변화가 단조롭기 때문에 정보의 분류와 내용의 위계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3) 지면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지 못한다.

효율적인 그리드 사용 : 비교적 체계적으로 그리드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의 경우는 1단을 주로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2단을 함께 사용하고, 프랑스는 1단을 기반으로 3단까지 폭넓게 사용한다. 독일은 2단 그리드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3단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이 내용의 변화에 적절한 그리드 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가장 안정된 편집 디자인을 보여 준다.

나) 글

너무 적은 내용 : 이 연구에서 진행한 교사와의 인터뷰

에 의하면 교과서만을 가지고 과학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의 쪽 당 단어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단어 수가 적은 이유는 대부분의 과학 수업이 실험과 관찰로 이루어지고, 이론에 대한 설명보다는 실험 사진과 삽화 중심으로 교과서를 꾸몄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그림과 사진은 아래 다)에서 지적하듯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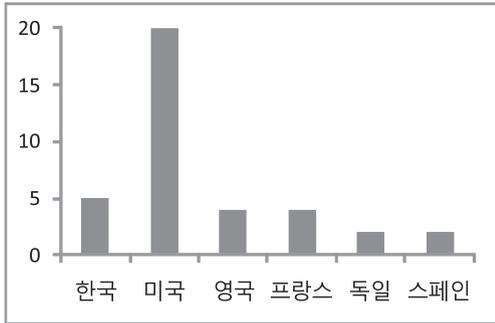
[쪽당 단어 수]

과다한 종류의 서체 : 우리나라 과학 교과서에 사용되는 서체의 종류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서체가 가장 많은 미국과 가장 적은 독일을 제외한 평균 값인 3.75에 비해서도 매우 많다. 제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의 변화도 우리나라가 가장 컸다. 가장 서체의 변화가 크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한 차시분에 5개의 서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적절한 내용과 서체 : 학생들이 읽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책이 교과서라면,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은 설명을 해야 한다. 배워야 할 내용을 선생님의 설명에 맡기려면, 교과서는 왜 만드나? 서체도 적당히 바뀌어야 한다. 서체를 너무 바꾸면 정돈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학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과도한 서체의 사용은 학습자의 이해도를 떨어뜨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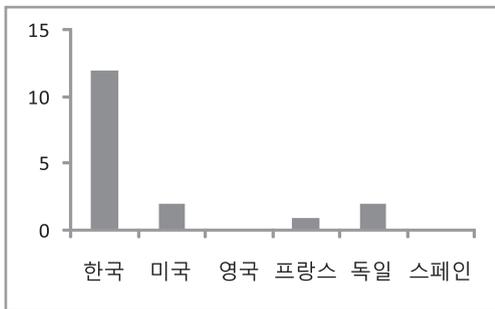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권의 도서에 2종류 이상의 서체 패밀리(동일 서체의 한 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한다.²⁾ 2종류의 패밀리만을 사용하여도 충분히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체 수]

다) 시각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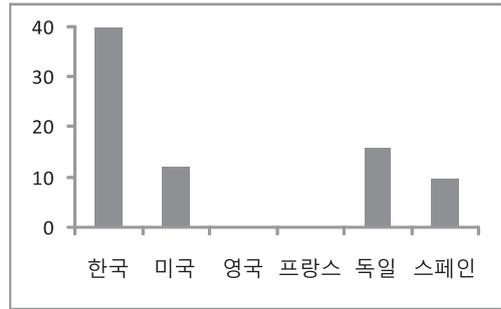
너무 많은 실험 사진 : 교과서의 내용을 실험으로 꾸미고 여백이 많으니 사진이 많다. 쪽 당 평균 실험 사진 수가 외국 평균의 12배에 달한다. 실험을 시연하는 인물 사진도 많다. 또래 인물을 보면 친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 실험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에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쪽 당 평균 실험 사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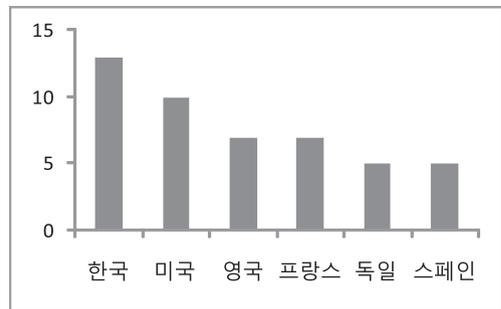
너무 많은 의미 없는 사진 : 내용의 흐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진도 너무 많다. 남아도는 공간을 메우기 위한 수단인데,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싶은 생각에 짜증이 난다. 외국 평균의 다섯 배가 넘는다.



[단순 이미지 사진 비율(%)]

너무 현란한 배경 : 글씨가 있는 부분의 배경에 색을 입히는 수도 압도적으로 높다. 외국 평균의 2배다. 저학년의 경우 배경에 색이 들어간 쪽 수가 책 전체의 2/3에 달한다. 배경색은 가독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배경에 놓인 흰색은 읽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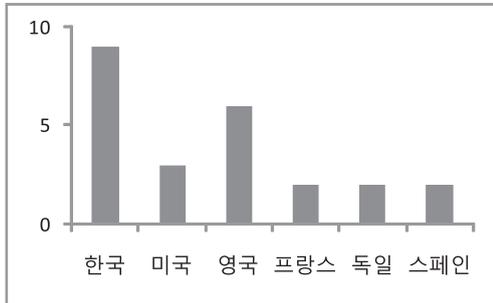


[단위 당 배경 색체 수]

통일성 없는 일러스트레이션 : 책을 넘기다 보면, 단원마다 그림이 달라진다. 짧은 납기일을 맞추느라 단원마다 다른 일러스트레이터에게 일을 맡긴 모양이다. 여러 명이 작업할수록 책의 통일성은 떨어진다. 일러스트

2) 현영호 외, 교과서 게재 시각 자료의 미적 구성 방안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4)

레이션은 사실 엄청난 정보를 줄 수 있다. 아래 우리나라의 예와 독일의 예에서 전달하는 정보의 차이는 엄청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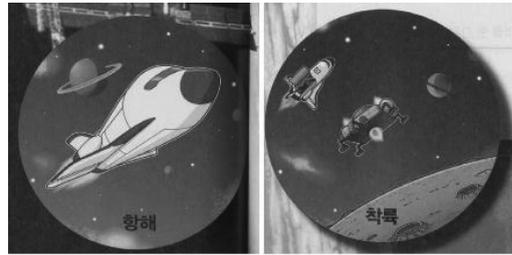
[일러스트레이션의 종류 수]

학습효율을 높이는 시각자료 : 이 연구에서 실험을 통해 밝힌 사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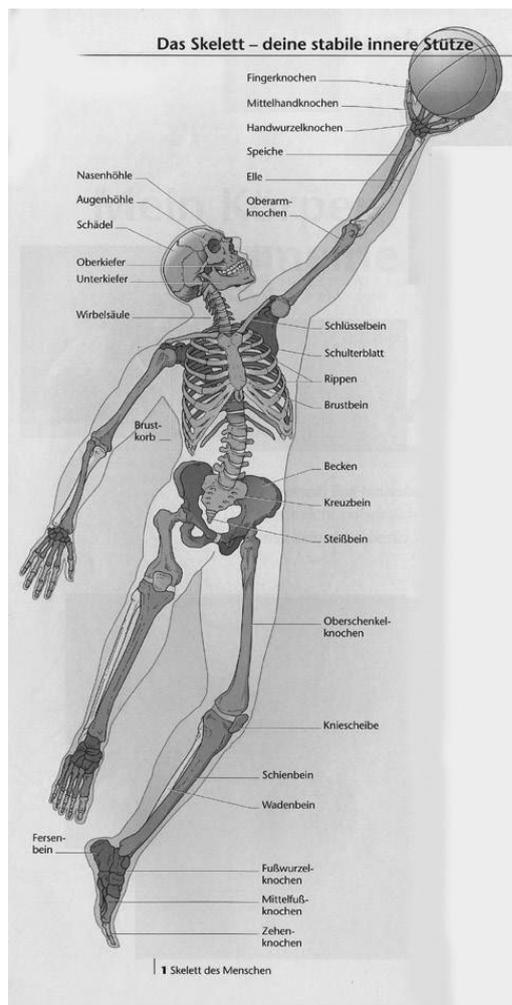
- 과도한 배경 색상 및 이미지 사용은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
- 정확한 일러스트레이션은 사진보다 이해가 쉽다.

이 외에도 현행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사진 자료가 내용과 연관성이 적고, 일러스트레이션의 설명적 기능이 부족하고, 아이콘이 기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알아보기 어렵고, 역할이 불분명한 카툰도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고, 인포그래피의 수준도 너무 낮았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시각자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 자료를 잘 쓰면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다.

그림1, 2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의 사례를 보면 단순히 그림으로 보여준다는 기능 밖에는 없다. 그림 자체도 항해와 착륙이 확연히 구분이 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보면 그림 안에 색으로 구분되는 정보와 이름을 포함해 많은 정보가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그림1] 우리나라 교과서의 사례



[그림2] 독일 교과서의 사례

4. 보고 싶은 교과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이 연구는 한 학기 교과서를 샘플로 개발했다.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 교수가 시각자료의 디자인만 바꾸었을 뿐인데,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자꾸 다른 쪽도 또 보고 싶어진다.

앞으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좀 써야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좀 해야 과학을 모르는 집필진을 과학을 아는 집필진으로 바꿀 수 있고, 영세한 출판사의 아마추어 디자이너를 유능한 전문 디자이너로 바꿀 수 있다. 제작 단가에 맞추어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고용해야 한다.

시간도 좀 더 써야 한다. 시간을 정해 놓고 마감하는 심의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설명을 만들 때까지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 집필진이 의도한 정보를 모두 표현하는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려면 일러스트레이터와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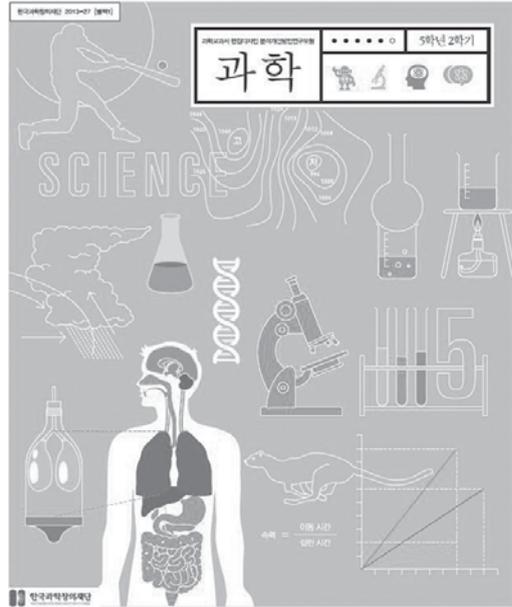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교육부의 1/n 정책이다.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교과서를 만드는 비용이 같다. 글만 있어도 되는 교과서나, 돈이 꽤 드는 사진과 정밀 묘사화가 필요한 과학교과서나 편찬 비용이 똑 같다.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제는 교과서에 돈 좀 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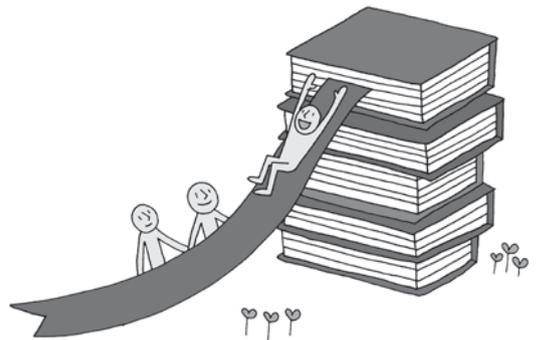


필자소개

물리학을 전공하고 한국물리학회 of 교육관련 실무이사를 지냈다. '힘과 운동 뛰어넘기', '빛과 파동 흔들기' 등의 집필에 참여하였고, 국정교과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09교육과정 개정에도 동참하였고, 현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융합과학교육단에서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샘플 교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의 적합성 비교



신 학 수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

1. 서론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과학의 교육과정 목표 중 특징적인 것은 이전 교육 과정 목표와 달리 ‘내용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STEAM)과 관련하여 서술할 것’과 ‘과학의 본성 및 과학, 기술, 사회의 관계(STS)’를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교과서 개발자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논의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로 개발된 교과서에는 이러한 교육과정 목표가 개발자의 수준과 역량의 한계 내에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교과서 개발자들에게 STEAM 교육의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개발자의 견지에서 보면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분석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구성되었을 때 1학년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적용하는 첫 시험대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1학년 교과서의 채택이 2, 3학년 교과서의 채택과 연계되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1학년 교과서의 개발에 전력을 기울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교과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이미 개발된 교과서 중 2종을 선택하여 적합성이란 틀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에 있어서 주관적인 관점을 배제하기 위하여 내용의 질적 평가보다는 구성 요소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적합성 검토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가 교육과정 목표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다음의 4

가지 준거로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 교육과정 목표의 반영 정도
-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반영 정도
- 학습 분량의 다소
- 내용의 난이도

(1) 교육과정 목표의 반영

중학교 과학의 경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하여 교과서에 반영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과학의 본성을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할 것
-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이하 STEAM)는 목표를 반영할 것
- '과학이 기술 발달과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 (이하 STS)을 반영할 것

2009 교육과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러한 목표를 제외한 다른 목표는 과학 교육과정에서 지금까지 충실

히 지켜왔던 과학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목표이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단원명은 공통적으로 '과학이란?'이었다.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과학의 유용성을 이해하는 것'과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2종의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중 단원은 2~3개로 구성되어 있고, 분량은 12~14쪽이다. 분석한 2종 교과서 모두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내용을 구성하였다.[표1]

교육과정 목표의 또 다른 강조점은 STEAM과 STS 내용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목표의 반영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단원별로 STEAM과 STS 요소의 반영 정도를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STEAM과 STS 관련 내용을 이용하여 중단원 혹은 소단원을 도입하였고, 중단원이나 소단원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STEAM과 STS를 별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음 [표2]

[표1 과학의 본성에 대한 단원 구성]

단원	목표	A		B	
		중단원수	분량	중단원수	분량
과학이란?	사례를 통한 과학의 유용성 이해	1	6	1	6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2	6	1	8

[표2 STEAM 및 STS 내용 반영 정도]

단원	A		B	
	STEAM	STS	STEAM	STS
2.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4	2	2	3
3.힘과 운동	7	0	5	1
4.광합성	7	2	4	0
5.열과 우리 생활	3	1	4	1
6.물질의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4	2	4	2
7.수권의 구성과 순환	5	3	4	2
계	30	10	23	9

는 별도의 분량으로 소개한 STEAM과 STS 내용을 각 단원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 결과는 A 교과서는 B 교과서에 비해 STEAM 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음을 보여 준다. 각 교과서는 중단원 당 평균 1개 정도의 STEAM 소재를 개발하여 반영하였다. 특히, A 교과서의 경우 힘과 운동 단원과 광합성 단원에서 각각 평균 2개 정도의 STEAM 소재를 개발하였다. 대부분의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는 중 단원 당 1개 정도의 STEAM 소재를 개발한 것으로 판단되고, 교과서 전체적으로 STEAM 및 STS 관련 소재가 30~40개 정도 개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STEAM과 STS 내용은 여전히 본문과 별도로 내용을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교육과정 목표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약간은 거리가 있어 보인다. STEAM과 STS 내용을 본문으로 구성하기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개발자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차후 교육과정에서 STEAM과 STS 내용을 발전시켜 반영하려면 STEAM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교과서에서 학생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구성 요소는 본문이라기보다는 별도로 제시되는 다양한 형식의 ‘관련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각 교과서에는 그 교과서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자료들의 내용은 본문과 관련된 발전된 개념, 관련 기술, 발견된 사실, 신문 기사, 인물 소개 등이다. 또한 토의하기, 창의력 키우기, 생활 속의 문제 해결하기, STS와의 연관성 찾기 등은 교수-학습 과정이나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해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이러한 요소들이 흥미를 유발하는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양적·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내용과 표현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질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교과서에 수록된 흥미 유발 요소를 수록된 양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각 교과서에서 활용한 본문 관련 자료의 수는 단원 당 5~6개 정도로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A교과서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토의하

[표3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 반영 정도]

단원	A			B		
	관련 자료	토의 하기	창의력 키우기	관련 자료	생활 문제 해결하기	STS 연관짓기
1.과학이란	1	4	2	2	1	1
2.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8	4	8	7	2	3
3.힘과 운동	7	2	5	6	4	5
4.광합성	8	1	6	5	1	3
5.열과 우리 생활	4	1	1	4	4	6
6.물질의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6	0	3	6	7	5
7.수권의 구성과 순환	7	3	0	8	3	4
계	41	15	25	38	22	27

기'와 '창의력 키우기'를 개발하여 반영한데 비해, B 교과서는 과제 수행 과정을 통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인 '생활 속의 문제 해결하기'와 'STS와의 연관 찾기'를 개발하여 반영하였다. 이와 같이 흥미 유발 요소를 교수-학습 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개발자에 따라 다양하다.

이러한 흥미 유발 요소의 반영을 단원별로 보면 A 교과서는 5, 6, 7 단원의 흥미 유발 요소가 다소 약하고, B 교과서는 2, 4 단원의 흥미 유발 요소가 다소 약하다. A 교과서의 2 단원과 B 교과서의 6 단원은 흥미 유발 요소가 상당히 강함을 알 수 있다. 단원 별 흥미 유발 요소 반영 정도의 차이는 주로 개발자의 취향, 학문적 배경, 교육적 경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차이가 개발된 교과서들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다.

(3) 학습 분량

개발자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요구하는 학습 분량은 교과서의 총 학습 분량과 수업 총 시수에 관련되어 있다. 교과서의 총 학습 분량은 각 단원별 수업 분량(차시)과 차시 당 분량을 결정하면 산정된다. 차시 당 분

량은 개발자들이 현장의 지도 교사에게 기대하는 교수-학습 방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단순히 학습 분량을 차시 당 분량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평균적인 과학 교사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차시 당 분량으로도 충분히 학습 분량의 다소를 알아볼 수 있다.

차시 당 학습 분량은 A 교과서의 경우는 평균 2.9쪽이고 B 교과서의 경우는 3.5쪽이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교과서 총 분량에 있어서 B 교과서가 A 교과서보다 36쪽이 많기 때문이다. 교과서 내용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교과서의 질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 차시 당 0.5쪽 정도의 학습 분량의 차이가 교수-학습에 있어서 유의할 만한 변화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분량이 유의할 만큼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맞추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4) 교과서 내용의 난이도

교과서 내용은 교육과정의 세부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기술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난이도는 학문적인 수준의 차이에 의하여 나타나기보다는 학습할 내용을 조직

[표4 학습 분량]

단원	A			B		
	분량	차시	차시 분량	분량	차시	차시 분량
1.과학이란	14	3	4.7	17	4	4.3
2.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60	20	3.0	62	19	3.3
3.힘과 운동	50	17	2.9	51	16	3.2
4.광합성	54	18	3.0	51	16	3.2
5.열과 우리 생활	32	11	2.9	42	12	3.5
6.물질의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48	17	2.8	64	17	3.8
7.수권의 구성과 순환	41	16	2.5	48	12	4.0
계	299	102	2.9	335	96	3.5

[표5 요소별로 본 내용의 난이도]

단원	A				B			
	물음	삽화	탐구	연구조사	물음	삽화	탐구	STS조사
1.과학이란	0	13	2	1	1	19	2	1
2.지구계와 지권의 변화	10	85	7	4	4	77	7	3
3.힘과 운동	10	70	5	3	14	65	5	5
4.광합성	4	53	11	6	8	58	4	3
5.열과 우리 생활	5	42	5	2	10	52	3	6
6.물질의 상태 변화와 분자 운동	8	63	9	2	8	88	5	5
7.수권의 구성과 순환	6	62	7	2	6	47	5	4
계	43	388	46	20	51	406	31	27

하거나 진술하는 방식에 의하여 발생한다. 학습할 내용 중 본문을 진술하는 방식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난이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학 교과서의 경우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을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는 물음이나 시각적인 방식으로 본문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삽화는 학습할 내용의 난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한편 학습 내용을 심화시키는 연구나 조사는 학습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학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역설적이게도 탐구할 양이 많으면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표는 이러한 준거를 바탕으로 두 교과서에서 난이도가 발생할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 기본 개념을 확인하거나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 물음과 삽화는 A 교과서보다 B 교과서에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난이도를 높이는 탐구 및 연구와 조사 활동 내용은 A 교과서가 B 교과서보다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A 교과서의 난이도가 B 교과서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원 별로 보면 광합성, 열과 우리 생활, 물질의 상태 변

화와 분자 운동 단원의 난이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3.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적합성 수준

지금까지 교육과정의 목표에 적합한 교과서가 개발되었는지에 대하여 4가지 준거로 분석해 보았다. 교과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이전에 교육과정 목표가 충분한 연구와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인 STEAM 교육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었는지 개발자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의 특징적인 목표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특히 STEAM 내용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할 정도로 반영되었다. 하지만 차후 STEAM 내용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STEAM의 교육적인 효과를 연구한 후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각 교과서마다 표현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적당한 분량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의 대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공하는 형식이어서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교과서의 흥미 유발 요소가 본문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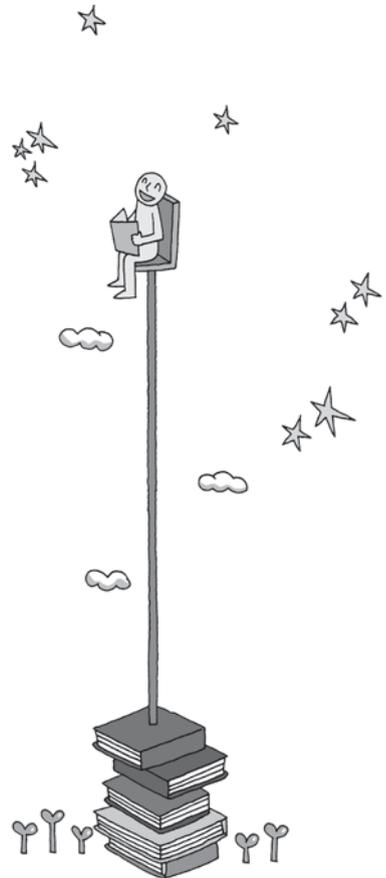
교과서의 학습 분량은 표준화되어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취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가 제한된 내용만이 제공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다. 개별화된 교수-학습을 위하여 교과서 자체의 형식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단계인 것이다.

교과서는 보통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난이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개발자들의 성향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질 뿐이다. 과학 교과서의 경우 ‘탐구’는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이다. ‘탐구’가 적으면 학생들에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탐구’가 많으면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 수행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탐구’의 양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과학 학습의 난이도를 완화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들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필자소개

1985. 2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학사
 1995. 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박사
 7차교육과정 중학교 과학교과서 개발
 2007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교과서 개발
 2009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교과서 개발
 2005 서울과학고 물리교사
 2008 서울과학고 과학교육부장
 2012~현재 서울과학고 융합교육기획부장



현행 영어 교과서의 한계와 개선 방향



이 병 민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 교수

우리나라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해서 중등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대학에서 교재론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실제 교육부 규정에 이 과목이 교직을 위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는 예비교사는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하고, 분석 및 평가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교재론 강좌를 처음 시작할 때, 필자가 학생들과 함께 보는 영화가 한 편 있다. 미국의 버몬트주에 있는 보수적이며 귀족적인 사립학교를 무대로 한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다. 이 영화에서 영어 교사로 부임한 존 키딩은 첫 문학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실험을 한다. 그는 어느 학생에게 교과서의 첫 장(章)인 ‘시란 무엇인가?’를 읽게 한다. 이 학생이 읽는데 따라서, 그는 책의 내용을 칠판에 열심히 적는다. 이어서 모범생 같이 생긴 한 남학생이 자신의 노트에 칠판에 있는 내용을 적기 시작한다.

잠시 후 키딩은 쓰기를 멈추더니,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모두 찢어버리라고 말한다. 순간 학생들은 키딩 선생의 말을 잘못 들었나 의심하며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가 재차 교과서의 첫 장은 쓰레기이니 찢어버리라고 말하자, 한 사람씩 교과서를 찢기 시작한다. 이윽고 학생들은 신이 나서 교과서 첫 장을 찢는다.

이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키딩 선생이 학교를 강제로 떠나는 장면과 대비된다. 키딩의 수업을 대신 맡게 된 교장 선생은 교과서 하나하나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가르치려 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진 교과서에는 그 부분이 찢겨 나가고 없다. 교장의 수업 장면과 교과서를 찢는 키딩의 수업 장면은 이 영화에서 이렇게 묘한 대조를 이룬다.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두 개의 다른 장면을 만들어냈을까? 그리고 학교 교실에서 교과서는 과연 뭘까? 교과서가 교육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교과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 과연 교사의 가르치는 행위와 교과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교재론을 가르칠 때마다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런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몇 가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과서, 그리고 교안(또는 학습지도안)이다. 이를 영어로 바꿔보면, 교육과정은 curriculum이고, 교수요목은 syllabus이며, 교과서는 textbook(또는 coursebook)이며, 교안은 lesson plan이다. 이들 개념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왜 그런 교과목을 가르쳐야 하고, 왜 그 교과목에서 그런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왜 그런 순서로 가르쳐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나 배경을 설명하는 데 이들 개념은 유용할 뿐만 아니라, 근간(根幹)이 된다.

대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출발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개별 교과목은 목표와 내용을 담은 교수요목으로 구현되고, 교수요목에서 제시된 내용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별 교안이 구성되고, 교과목이나 교수요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선정하고, 각 차시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및 개별 학습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학습지도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면,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과서는 궁극적으로 해당 교과목에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습 자료, 수업 도구, 기자재의 일부다. 교과서는 그 자체가 교육과정도 아니고, 교과목도 아니고, 교수요목도 아니고, 학습지도안도 아니다.

다시 교재론 수업 장면으로 돌아간다. 필자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론 교재는 영국에서 발간된 Materials Evaluation and Design for Language Teaching이다. 이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교사가 교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적극적이고 능동

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수동적 사용자나 노예가 아니라, 능동적이며 창의적 사용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상상한다. 교사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사의 모습. 이 책은 그것을 의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재론이다. 교사와 학생이 처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으로 교과서를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학생 중심의 학생의 눈높이와 필요, 그리고 현장에 어울릴 수 있도록 교과서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보면, 이와는 다른 현실을 접하게 된다. 교과서는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대체하는 존재가 된다. 즉, 교과서가 교육과정이고, 교과목이고, 교수요목이며, 학습지도안이다. 새로이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교과서가 개편되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교과서 개편이 가장 중요한 후속 작업인 양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교육과정이 교과서로 구현된 듯하다.

우리 학교 교육에서 교과서는 일종의 신성불가침한 무엇처럼 받아들여진다. 20세기 이후 보통 교육이 도입되면서 자료나 책이 부족한 조건에서 교과서는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알파이자 오메가였다. 교과서 이외의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기에 적절한 대안이 별로 없던 시절, 뭘 가르친다고 해도 잘 다듬어진 자료가 없던 시절에 교과서는 매우 유용한 자료였다. 한 학기 동안 뭘 가르칠 것인지, 교사의 입장에서 교과서가 없으면 매우 부담스러웠고,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가르쳐야 할지 대안이 별로 없던 시절에 교과서는 전지전능한 존재였다. 그런 교과서의 모습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에서는 가급적 한 점 한 획도 빠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을 바람직한 교사의 상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철저히 외우고 암기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답하는 훈련을 한다. 가끔 교사가 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다루지 않고 지나가면, 학생들은 왜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은 이런 수업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은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를 심의하는 교육부의 지침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육과정이 교과서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교과서의 내용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교과서의 분량이 늘어서 배울 내용이 많아지면, 시험 범위가 많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아지며 학습에 부담이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교과서가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고, 교과서가 교육과정이 되고, 교과목이 마치 교과서인 것처럼 치부되는 학교 수업을 흔히 ‘coursebook teaching’이라고 한다.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는, 교과서에 의해서 교사의 수업이 종속된 교육이다. 그 반대의 개념이 ‘coursebook-based teaching’이다(McGrath, 2002).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교과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교과서의 순서와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가 자신의 목적, 교육 목표, 학생들의 수준과 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변형하고 수정하고 첨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조력자이며 동반자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갈수록 빈약해졌다. 내용은 물론이고 다뤄야 할 내용도 제한적이다. 특히 영어 교과서를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해당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다. 이전에는 학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단어의 양이 정해져 있었다.

최근에는 이런 제한을 조금 완화해서 학교급별로 사용할 수 있는 권장 단어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고 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런 조건에서 어떤 경우에는 꼭 사용해야 하는 단어를 다른 어색한 단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어색한 표현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단어 수의 제한 때문에 꼭 써야 할 단어를 쓰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른 단어로 대체해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어색한 사오정 표현이 만들어진다(주간동아, 2001. 3. 29).

영어교육에서 강조하는 것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다.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영어 교과서는 다양한 듣기나 말하기 활동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동을 보면 간단한 예시 대화가 있고, 대화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거의 없다. 실제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비슷한 표현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하는 대화인지에 따라 의미는 달라진다. 가령 “Where are you going?”이라는 표현을 안다고 해서, 이 표현을 길거리에서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는 없다. “You’d better . . .”라는 표현을 배웠다고 해서,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또는 아무에게나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어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제약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대화가 일어나는 맥락이나 상황을 우리말로 제시하면, 영어 교과서가 마치 국어 교과서처럼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영어로 제시하면 단어 제한에 걸려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제시할 수 없다. 그러니 영어 교과서는 최소한의 내용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교사의 능력에 맡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교사의 설명이나 참고서를 활용하지 않으면, 학생 스

스로 내용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영어 교과목은 영어권이나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대개 영어 교과서들은 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언어를 배우는 데 문화를 배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 영어 교과서에서 문화를 다룬 내용을 보면 매우 간략할 뿐만 아니라, 일부 경우에는 빈약하기도 하다. 또한 영어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 우리말로 내용을 소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내막을 보면, 이것도 단어 제약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어 교과서가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이 영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라면, 실질적으로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고, 다른 여러 나라의 문화도 다양한 화보나 충실한 설명을 통해서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분량의 제약과 단어의 제한 때문에, 영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없다. 단적인 예로, 미국 교과서들이 대개 500-600쪽 정도인 반면에, 우리 교과서들은 200-300쪽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가 크다. 영어 교과서에서 수준별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서와 학습활동 자료를 분리해서 제공했다가, 다시 한편으로 통합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교육(coursebook-based teaching)이라면, 영어 교과서의 내용에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 구태여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식 교육과 평가 방식은 영어 교과서를 위주로 교과서의 내용을 모두 가르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어 교과서는 가르칠 내용, 필요한 내용, 학기 내에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내용만을 담게 된다. 소위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하고, 대부분 다른 일정이 겹치면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는 데 급급해요.”라는 어느 영어 교사의

말 속에 이런 교과서와 학교 교육의 모순이 드러난다. 심지어 언제부터인가 12개 단원으로 구성된 영어 교과서보다 10개 단원으로 된 교과서들이 영어 교사들에게 더 선호된다.

교과서와 관련해서 또 다른 문제점은 교과서는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사 위주로 만들어지며,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활용하고 학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영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나 개념에 대한 설명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고, 교사의 설명이 없거나 추가적인 보완자료가 없으면 교과서 자체만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하지 않다.

영어 교과목의 특징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운동이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충분히 연습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영어 읽기 지문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영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 과마다 제시한 단 하나의 읽기 지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더 많은 자료와 설명이 필요하다. 적어도 유사한 내용과 단어로 이루어진 여러 개의 지문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Ghosn, 2010). 그런 지문을 영어 교사가 직접 찾거나 새로 제공해줄 수 없다면, 영어 교과서에 담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지면의 제한, 단어의 제한,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모든 제약과 우리 영어 교과서가 갖는 한계는 교과서가 교육과정이고 교수요목이며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제 교과서는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업 자료의 하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과서가 교육과정이고, 교과서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는 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생각을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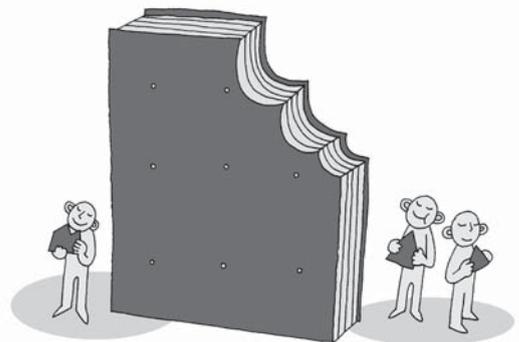
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영어 교과서는 정보나 내용 기술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더 친절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영어 교과서는 더 많은 내용을 담아야 하며, 내용이나 설명에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영어 교사의 많은 설명이 수반되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수수께끼 같은 교과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다 친절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소장
전, 한국영어교육학회 총무이사
전, 숙명여자대학교 영문과 교수

참고문헌

- 주간동아. (2001. 3. 29). 미국인도 아리송! 영어교과서 맞아? 틀린 어법 · 어색한 표현 ‘사오정 영어’ 투성이... 교육부는 “표현상 차이” 발뺌 급급. 주간동아, 제 277호, 32-35.
- McGrath, I. (2002). *Materials Evaluation and Design for Language Teaching*. Edinburgh University Press.
- Ghosn, I. (2010). Five-year outcomes from children's literature-based programmes vs. programmes using a skills-based ESL course-The Matthew and Peter Effects at work? In Brian Tomlinson & Hitomi Masuhara (Eds.)'s *Research for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Learning: Evidence for best practice* (pp. 23-36). New York: Continuum.



좋은 음악 교과서의 조건



김 대 원
화원중학교 교장

우리는 흔히 교과서라는 말을 다양하게 사용한다. “○○○는 골프 스윙의 교과서”, “○○○의 삶은 훌륭한 도덕교과서” 등등…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교과서는 가장 모범이 되거나 표준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이는 교과서는 정확해야 하며 모범과 표준이 되는 책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일까? 어떤 사람은 사용하기에 편한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는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오류가 없는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한다.

위에서 열거한 좋은 교과서에 대한 관점은 개인적 취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용이 편리한 교과서, 다양한 학습 자료가 구비된 교과서, 오류와 편향성이 없는 교과서 등등은 교과서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 좋은 교과서의 조건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위에서 열거한 좋은 교과서의 관점들은 교과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교과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 ‘좋은 교과서의 조건’이 되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의 교과서 중에서는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교과서도 많다는 반증이 된다. 교사라고 모두 좋은 교사가 아니고, 부모라고 모두 좋은 부모가 아니듯 교과서라고 해서 모두 좋은 교과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좋은 교과서라면 어쩌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1. 본질에 충실한 교과서

교과서가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서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라고 규정하고 있고, 문헌정보학용어사전을 보면 “교과서는 일반적으로는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를 교수(教授)·학습활동에 따라서 적절한 형식으로 편집한 도서. 즉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용도서(教科用圖書)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교과서를 “학교의 교과 교육을 위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한 도서”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때 교과서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한 교과서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는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학생이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도서라는 것, 즉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 교과서는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 즉 교수·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등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악교과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먼저 음악교과서는 음악과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과정에 충실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음악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목표에서 ‘음악’은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하여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움으로써 음악을 삶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라고 제시하고, 음악교과는 음악적 정서와 표현력을 계발하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여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여 이를 통해 우리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문화적 소양을 지닌 전인적 인간이 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음악과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즉, 다양한 음악 활동이 가능한 교과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교과서, 음악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삶 속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음악교과의 본질에 충실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형식에 충실한 교과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몇 가지 자료가 있다. 먼저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과 검·인정 기준이 있다. 또한 편수자료도 있다.

먼저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는 교육목표와 내용, 교수·학습방법과 평가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목표 달성에 적합한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교과서 편찬시 중요한 기준이 된다.

편찬상의 유의점은 공통기준과 교과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음악과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개발 방향’, ‘교과서의 구성 체제’, ‘내용의 선정과 조직’, ‘내용의 수준과 범위’, ‘기타’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검·인정 기준은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법질서, 교육과정 및 편찬상의 유의점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기술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서, ‘헌법 정신과의 일치’, ‘교육기본법 및 교육과정과의 일치’, ‘지적재산권의 존중’, ‘내용의 보편타당성’을 심사하는 공통기준과 각 교과목별 특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교과 기준으로 제시되는데 음악과의 교과 기준은 ‘교육과정의 준수’,

‘내용의 선정 및 조직’, ‘창의성’, ‘내용의 정확성 및 공정성’,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표기·표현 및 편집’ 등의 요소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이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해서 모두 좋은 교과서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형식적 기준을 지켰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최소한의 기준만 도달되면 점정이나 인정심사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오히려 좋은 교과서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교과서가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모두 좋은 교과서라고 볼 수는 없다. 80점을 받은 교과서와 98점을 받은 교과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합격 후에도 각각 교과서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내용에 충실한 교과서

교과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흔히 교과서 내용의 적합성과 연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평가관점을 적용하기도 한다.

음악교과서에서 내용 적합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음악교과서에 제시된 단원, 악곡, 학습활동, 학습내용, 용어나 개념, 교수·학습방법, 평가방법, 기타 학습자료 등 다양한 내용에서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이들 모두에 대해 다룰 수는 없으므로 이 중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좋은 음악교과서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제시된 악곡에 대한 내용 적합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음악과의 학습활동은 실음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음악은 소리로 구성되고, 다양한 악곡을 통해서 음악적인 경험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악곡에 대한 내용 적합성은 학생의 발달단계, 흥미,

[표] 교과서 분석 관점

관점	검 토 내 용
적합성	교육과정의 목표달성에 적합한 내용인가?
	학생의 발달, 요구, 흥미, 노력에 알맞은 내용인가?
	학습내용의 분량은 적절한가?
	중복된 내용은 없는가?
	학습내용, 용어의 수준과 난이도는 알맞은가?
	학습 시에 필요한 교재, 교구는 쉽게 구할 수 있는가?
연계성	학습내용의 조직에서 학년간, 교과내의 계열성이 잘 반영되었는가?
	교과간의 횡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이 제시되었는가?
	학습내용의 배열 조직은 서로 연계성 있게 제시되었는가?

* 교육부(2011), '교과서 분석 주요 관점: 공통적인 분석 관점(적합성·정확성·연계성·기타)' 중에서 발췌.

수준, 예술성, 교육적 필요성 등 악곡 자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활용상의 적합성에 관한 것일 수 있다.

교과서에서 악곡을 선택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유명한 작품이라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작품이라서, 애초부터 교육용으로 만든 곡이라서, 독특한 작품이라서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이유가 다 타당할 수 있다.

유명한 작품이라는 것은 예술성이 높아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서에 실리게 된다. 예컨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나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협주곡’ 같은 곡을 들 수 있다. 학생 수준을 고려해서 교과서에 들어간 경우는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나 프로코피에프의 ‘피터와 늑대’ 등을 들 수 있다.

또 처음부터 교육적인 의도를 갖고 작곡되어 교과서에 실리게 된 악곡도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을 들 수 있겠다. 그밖에도 음악적 개념이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시나 소설, 희곡 등의 문학 작품을 바탕으로 한 음악, 미술과 관련된 음악, 무용과 관련된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음악 작품도 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박자, 가락, 화성, 형식, 빠르기, 셈여림, 음색 등 다양한 음악적 개념이나 가창, 기악, 창작 등 표현 활동과 감상 활동에 적합한 악곡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악곡의 길이, 조성, 주요 리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일이므로 예컨대, 어떤 악곡은 너무도 예술적으로 훌륭하지만 너무 길어서 교과서에 실기에 어려운 곡도 있고, 어떤 악곡은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어려운 곡이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실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가락은 아름다운데 가사가 비교육적이어서 실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초등학생 수준에 알맞은 단조(短調)곡을 찾기가 너

무 어려워 가까운 작곡가에게 작곡을 의뢰해야만 했다는 하소연을 하는 어떤 교과서 저자의 말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중 하나가 교과서에 사용되는 악곡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을 종류와 형식, 장르별로 분류하고 사용된 음악적 개념과 형식을 분석하여 교과서에 사용될 수 있는 악곡의 목록(pool)을 만들 수 있다면 보다 학생의 발달 수준에 알맞은 예술성 높고 음악적으로 바람직한 악곡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활용적 측면의 적합성이다. 좋은 교과서는 내용 구성 자체의 적합성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활용성이 좋은가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교사에게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하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교사가 활용할 자료가 많은 교과서를 꼽는다. 즉, 각 단원에서 주로 다루는 제재곡 외에도 참고곡이 다양하고, 읽을 거리와 이야기 거리가 많고,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교과서가 활용적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오페라’에 대한 학습을 한다면 교과서에서 오페라의 역사, 오페라의 구성과 내용, 대표적인 오페라에 대한 감상 학습, 오페라 중 아리아나 합창 부분에 대한 가창 학습, 서곡이나 주제선율에 대한 기악 학습 등 통합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함으로써 오페라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활동에 이르기까지 심화된 학습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음악적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리코더에 대한 학습의 경우, 기본적인 운지법이나 주법에서 시작하여 연습곡, 연주곡(독

주, 중주, 합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연주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좋은 교과서를 위한 제도적 보완

위에서 좋은 교과서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좋은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과서 전문 연구기관이 없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내에 교과서 편수조직이 있어 지속적인 교과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한 상시적 개선 시스템이 운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교과서 개발 계획이 마련된 후에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교과서가 사용되면 연구는 종료된다.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 교과서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운영되었다가 종료되어 버리는 교과서 개발이 반복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 검·인정도서의 경우 교과서 개발에 대한 전권이 출판사에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새로운 교과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각 출판사에서는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하고 편집진이 돕는 체제로 운영된다. 교과서 집필자는 그동안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것이 아니고 집필자로 위촉이 되면 교과서 집필계획을 마련하게 되므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교과서 개발에 그치게 된다. 이렇게 일회적인 교과서 개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좋은 교과서가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 기존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좋은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대한 평가가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별로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음악과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악곡에 대해서 학생의 발달 단계나 흥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제시된 교수·학습활동은 얼마나 타당한지 또 적용 가능한지? 학습 내용의 적합성과 난이도는 고려되었는지? 연구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과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구현한 가장 좋은 교재라고 한다. 좋은 교과서가 제작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과정이 각 학교급별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국가·사회적 요구와 교과의 특성 및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좋은 교과서는 편찬 및 발행 제도의 개선, 내용 구성의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교육청 및 학교와 교사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교육부에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을 거치면서 국가교육과정 기획팀장, 음악과 편수담당관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교육과정 심의위원, 교과용도서 심의위원, 교과용도서 검정위원 등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된 자문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좋은 교과서는 어떻게 개발되나



조 준 형
프레임박스 기획위원

‘좋은 교과서’란 보는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교과서 심사과정에서 심사 점수가 높은 것이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고, 많은 학교에서 채택된 교과서를 좋은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교과서는 거의 비슷비슷하다’는 생각으로 교과서의 질에 차이가 있다는 견해 자체에 대해 냉소적일 수도 있다.

이처럼 ‘좋은 교과서’에 대한 입장이 주관적이듯,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근 6~7년 두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편집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작은 생각들을 정리함으로써, 차기 교과서 개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글을 적어 본다.

1. 교과서 개발 전문 프로듀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공동으로 작업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어서,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발 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하다. 영화에서 감독이나 방송의 피디의 역할을 할 사람이 교과서 개발에도 필요한 것이다.

교과서 개발 과정에는, 저자, 편집자, 디자이너, 삽화가, 컷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는데, 우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제대로 선정하여 팀을 구성하는 것부터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작업이다.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해석과 적용에서부터, 교과서 체제 설계나 단원 구성, 제재 선정, 디자인 방향 등 크고 작은 결정을 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일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

는 교과서 개발의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도 풍부하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어 교과서 개발 전체를 프로듀싱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교과서 개발의 책임 프로듀서의 역할을 저자가 맡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저자는 대학이나 학교에서 연구와 강의 그리고 학생 지도를 하고 있으므로, 전적으로 교과서 개발에 집중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출판사와의 조율이나 저작권 문제 해결, 제작 진행, 일정 관리 등과 같은 일도 책임지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의 편집 책임자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편집 책임자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저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다.

2. 좋은 저자 선정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저자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며, 그 내용을 책임지는 사람이 저자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과서는 다양한 영역의 전공 지식을 갖춘 여러 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집필하므로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힐 경우가 많아 의견 조율이 수시로 필요하고,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저자들을 잘 독려하여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 나가야 한다. 대표저자가 원고 집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견 조

율과 진행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충분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저자는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으면서 교육과정에 정통하고 또 교과 교육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저자들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저자가 결정되면 대표저자와 함께 작업할 공동저자를 구성하게 되는데, 교과목의 영역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다양하게 선정하게 된다. 공동저자는 대체로 대표저자가 선정하게 하면 무리가 없지만, 너무 친분을 우선하는 경향은 피할 수 있도록 편집자가 적절하게 조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대학교수와 현장 교사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교수는 교과목의 영역별 전문가로 주로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통해 이론적인 바탕을 책임지며, 현장 교사는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수업의 흐름이나 난이도, 학생들의 흥미 등을 반영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교과서 저자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과서 개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교과서 개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교과서 개발 이후에도 교사용 지도서를 비롯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이나 교과서 수정 보완 작업까지 진행하려면,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공급하겠다는 열정이 꼭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을 갖춘 현장 교사로만 저자가 구성되기도 하는데,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형식적인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잘 반영하게 되어 사용하는 교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한다.

3. 좋은 자료가 좋은 교과서를 만든다

실질적인 교과서 개발 작업은 자료 준비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좋은 교과서 개발 하느냐는 자료를 얼마나 알차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에 1차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교과서 체제, 단원 구성, 제재나 자료, 활동 등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새 교과서를 개발하는 내내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 교육과정에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반영되기 마련인데, 이 또한 새 교과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저자들의 도움을 받아 학회지나 단행본 등을 구입해서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 둔다.

다른 교과목의 교과서에서도 참고할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통합교과적인 내용을 실을 경우에는 타 교과서의 내용이 큰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교과목의 외국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등에서도 새로운 체제나 활동 방법 등을 찾아서 참고할 수 있다.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가능하면 제본하여 저자와 편집자 모두가 1권씩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현장 검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실험용 교과서를 개발한 후 몇몇 학교에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검토와

정을 거친 후 수정 보완하여 천제 학생들이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검정이나 인정 교과서의 경우는 심사에 합격한 후 바로 수정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도 짧다.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한 수정이 주가 되고, 내용을 대폭 보완할 여유는 없다. 따라서 가능하면 교과서를 개발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교과서 저자 가운데 현장 교사들이 포함되는 경우, 집필과 저자 검토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의 적합성이 점검되기는 하겠지만, 시간과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여러 교사들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이나 수준이 다른 학교에 분산하여 검토를 진행하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장 검토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진행해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지, 수업 시간에 가능한 활동인지, 학생들이 흥미를 어느 정도 가지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수준과 성향이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 검토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아울러 교과서에 수록되는 학생 활동 예시라던가 사진 모델 등을 실제 해당 학년의 학생을 활용하는 것도 학생들의 생생한 모습을 담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친근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다.

어문교열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좋다. 저자와 편집자 등이 여러 차례 교정 과정을 거치지만, 시간과 개발비의 여유가 있으면 어문교열 전문가에게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 출판사의 경우라면 교정교열에 능숙한 타 과목 편집자가 서로 검토해 주어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체계적인 디자인 디렉션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교과서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다. ‘교과서에 맞는 디자인’이란 해당 교과목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말한다. 교목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 교과서의 체제나 단원 구성을 쉽게 구별되는 디자인이면 좋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는 삽화나 컷 그리고 사진도 교과목의 내용과 학생 수준에 맞아야 하겠다. 이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전체 디자인을 책임지는 디자인 디렉터가 필요하다. 교과서의 개발 방향과 체제를 의논할 때부터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차 교육과정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으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심사에 디자인 관련 항목이 포함되고 심사위원에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어 교과서 개발에서 디자인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커지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심사에서는 디자인 항목이 없어지는 했지만, 그래도 내용 못지않게 디자인이 학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합격 후에 학교에서 교과서를 선택할 때에도 교사들이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커졌는데, 교과서가 갖추고 있는 디자인적인 요소가 학습에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교과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구입해서 보게 되는 책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해당 교과에 대한 학습 효율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미적 감각까지 키울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좋은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6. 수업 보조 자료 준비로 교과서가 완성된다

등학교 검정 교과서의 경우,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제출하여 연계해서 심사하게 되지만, 중고등학교 대부분의 교과서는 제출 이후에 혹은 심사에 합격한 이후에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과서 수정 작업이나 참고서 개발 일정과 맞물려 교사용 지도서의 개발은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투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좋은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려면, 교과서를 개발하는 동안에 교사용 지도서 개발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단원 설계의 의도나 수업 방법을 메모해 두고,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예시답안도 기록해 두고, 수록되는 자료의 출처나 수업에서 활용 방법, 참고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교과서 개발 이후 바로 교사용 지도서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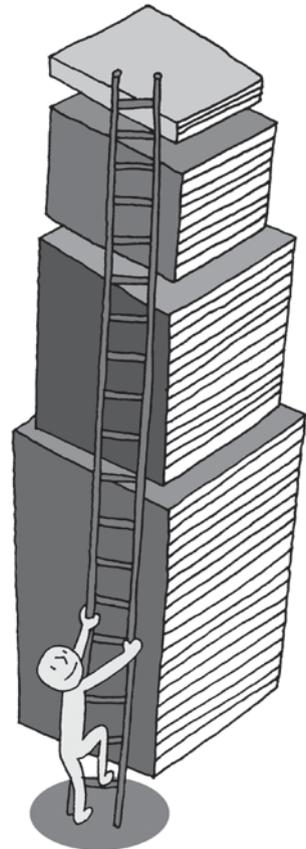
교사용 지도서 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수업 자료를 동시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적용할 때에는 학생과 수업 진행 방법을 고려하여 자료를 알맞게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우선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음 놓고 사용할 매뉴얼과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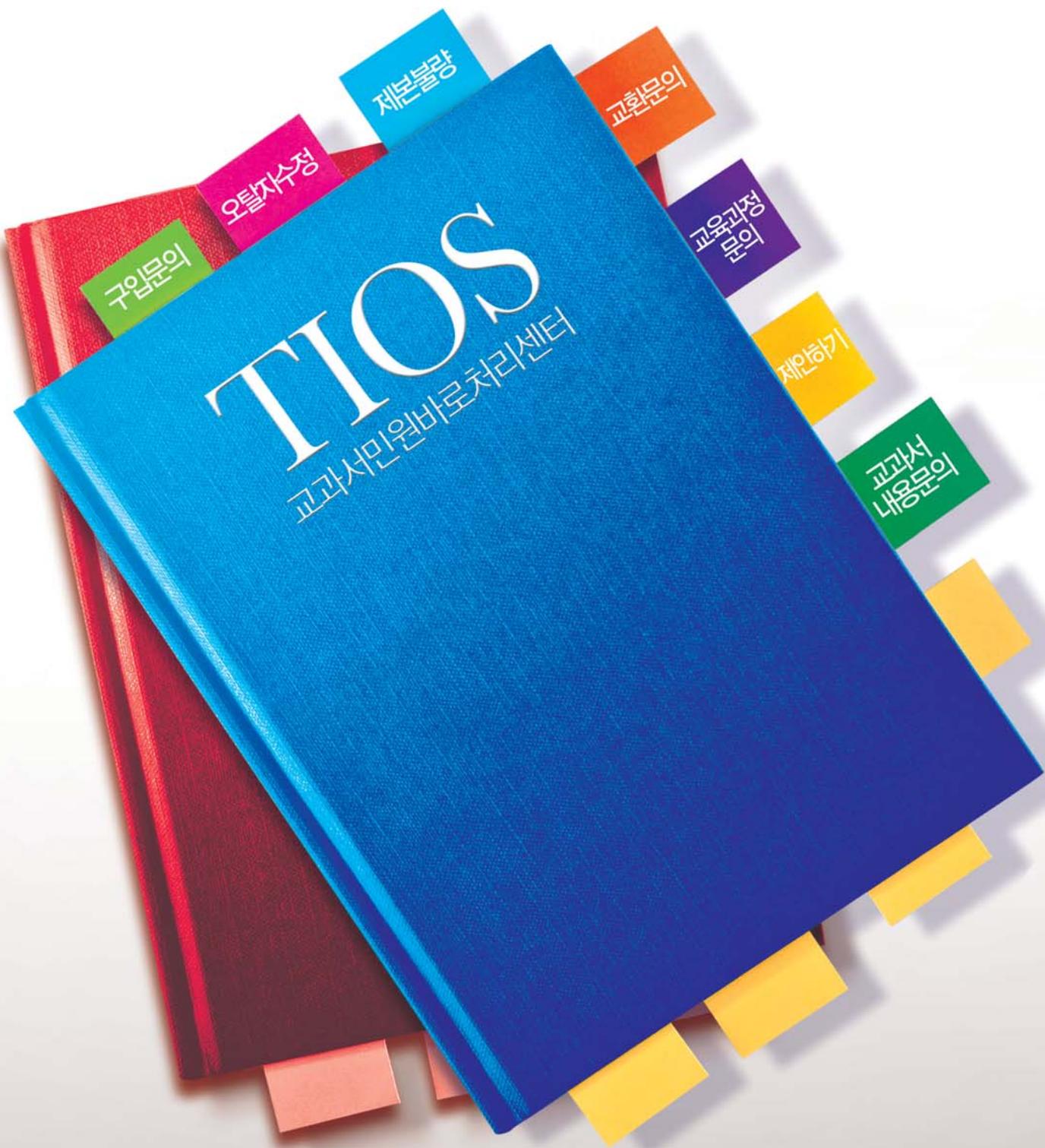
교사들에게 필요한 수업 자료로는 수업 계획안(연간, 차시별), 수업 시간에 활용할 파워포인트 자료, 동영상 자료, 활동지, 평가 자료, 기타 참고 자료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업 보조 자료를 출판사 차원에서 개발하여 학교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이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포함하여 교과용 도서에 포함되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교과서 개발로 시작하여 다양한 수업 자료 개발까지를 전체적인 교과용 도서 개발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소개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 전 (주)천재교육 편집부(부장), 전 김포대학 전자출판과 겸임교수
현재 프레임박스 기획위원,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천재교육)





구입문의

오탈자수정

제본불량

교환문의

교과과정
문의

제안하기

교과서
내용의

교과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

교과서는 어디서 사야 하지? 교과서 불량은 어디 가서 신고하지?
사소한 일이지만 많이 답답하셨나요? 교과서 관련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포털사이트, TIOS를 방문하세요.
교과서에 관한 문의부터 오탈자 수정, 제본불량 신고, 그리고 새로운 제안까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IOS가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약속 드립니다.

교과서 민원 처리는 Yes, TIOS!

● TIOS란?

TIOS는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의 줄임말로,
교과서 관련 민원 업무의 One-stop 처리가 가능한 교과서 관련
포털 사이트입니다.

● TIOS이용방법

TIOS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66-8572

www.교과서114.com
www.textbook114.com



교실 안의 ADHD.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김 고 은
천마초등학교 교사

● ADHD의 특성

ADHD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의 약자로 지금은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많이 익숙한 단어이다. 그러나 불과 약 5년여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뜻을 알게 되는 단어가 될 줄 짐작하지 못하였다. 그저 특이하거나, 문제성 행동이 있는 학생 몇몇이 가지고 있는 특성, 혹은 병인 줄만 알았다.

지금은 ADHD는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또한 실제로 약을 복용하거나, 정서행동 검사 시 이 증세를 나타내는 학생들이 매우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등학교의 한 학급에 2-3명씩은 ADHD를 의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발생빈도도 유치원생은 100명 중 2명, 4-6학년의 초등학교생은 100명 중 4-5명꼴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DHD의심 학생의 일반적인 특징

- 부주의하고 산만하며 과잉 행동을 한다.
- 불쑥 나서거나 참견을 많이 하는 등 충동적 성향을 가진다.
-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
- 일관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을 못하고 집중 시간이 짧다.
- 다른 사람의 활동을 자주 방해한다.
- 경청을 하지 못하고 말이 두서없이 많다.
-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 지나치게 뛰며 핵심 파악을 못한다.

주의산만, 과잉행동, 충동성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ADHD의 특성은 단체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생활에서 매우 큰 취약점이 되며,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다. 교실 안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제 학생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 책상 주변이 온통 종이 오린 것과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다.
- 책상 서랍, 사물함, 가방 안에 오래 된 학습지, 예전 학습물들이 정리가 안 된 채로 있다.
- 친구들과 싸움이 잦고, 끼어들어서 말참견을 하다가 핀잔을 받는다.
- 학습 결과물을 제때에 완성해 내지 못하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
- 책, 공책, 책상에 낙서한 것, 칼이나 가위로 찢거나 파낸 자국이 많다.
- 교사가 하라고 하는 행동을 제때에 하지 않고, 꾸중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한다.
- 지능에는 문제가 없는데 읽기/기초 계산을 하지 못한다.
- 큰 소리를 내면서 주장을 하고, 감정의 변화가 급격하다.
- 거짓말을 잘 한다.
- 체육 시간에 몸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잘 넘어지거나 협동하는 운동을 못하는 등)
- 관련 없는 질문이 많고, 교사나 친구의 말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한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과 같이 ADHD 학생들은 일상생활 및 교실에서 공동체 안의 생활을 하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로서 이러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증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이다.

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어른들의 심리/언어적 학대 및 차별적인 언행, 또래 관계에서의 따돌림이나 무시, 제때 학습을 따라할 수 없어서 당연히 생기는 학습부진 등이 대표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이자 ADHD 학생에게 동반되는 대략적인 특성이다. 또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가진 학생들은 품행장애, 분노장애 등의 다른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층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은 결국 학생들에게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자리 잡게 한다. 해도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 혼나기만 한다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른과 교사에게 더욱 적대적으로 표현되고, 무기력한 학습 습관을 조성한다.

교실 안에서 ADHD는 여러 형태의 문제를 가진다.

먼저 이러한 학생들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정말 치료와 이해가 필요한 학생인지, 그저 좀 더 산만하거나 창의적인 학생인지, 아니면 교사와 스타일이 안 맞아서인지. 여러 이유와 배경이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러한 학생들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교실은 스무 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문제 행동을 지속하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살피기에는 여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모든 잘못을 다 짚고 넘어갈 수 없으니 그저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행동들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고, 교실의 학습 분위기 및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 ADHD 지도 방안

이에 교실에서의 지도는 ADHD 학생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비단 그 학생들뿐만이 아니라도 모두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ADHD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적인 정리/정돈 검사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월요일 아침 자습 시간, 금요일 하교 전 등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의 정리/정돈 상태를 점검한다. 사물함, 책상 서랍, 필통 등 학습 준비물의 정리 및 준비 상태를 점검하여 학습지가 사물함과 가방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학생들은 더욱 자신의 주변을 신경 쓰게 되고, 스스로 생각해서 정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칭찬받을 기회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다. ADHD 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문제 행동으로 인해 받는 꾸지람이 칭찬보다 훨씬 많다. 그러다보니 친구들에게도 항상 혼나는 친구가 되고, 본인은 “난 언제나 잘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학급에는 다양한 보상과 칭찬 제도가 있다. 그러한 제도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급의 경우는 칭찬 및 보상 제도에 구슬을 이용하였다. 칭찬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구슬 한 개씩을 준다. 이 구슬은 100원의 가치가 있으며, 반 학생들이 다 같이 구슬을 모아 구슬통이 차면 그 돈을 해외 결연 아동에게 보내주었다. 즉각적으로 구슬이라는 보상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게 되므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나의 착한 일, 칭찬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내면적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 때 칭찬은 잘하는 행동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90점 받은 친구가 100점 받은 것도 칭찬 받을 만한 행동이지만 20점 받은 친구가 50점을 받은 것은 100점보다 낮은 점수이지만 더 칭찬받을 일이다. 칭찬은 더 발전된 부분을 응원해주는 것이고 내가 잘한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학급 분위기가 조성 되면 교사는 주위가 산만하고 여러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보다 공개적으로 칭찬해 줄 수 있게 된다. 공개적인 칭찬은 학생들을 춤추게 하며, 다른 학생들은 그것을 차별로 여기고 질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진짜 잘하고 있어!”라고 박수치고 응원의 눈빛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잘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더 자주 칭찬을 받게 되고, 이러한 친구들의 적응을 도와준 친구들은 뿌듯함과 칭찬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문제 학생들을 학급의 활동에서 배제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학급 안에 품을 수 있게 된다.

● ADHD와 교과서 활용

교실 안의 활동은 수업과 수업 외의 학급 활동으로 구성된다. 학급 활동에서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조성이 된다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와 학습 부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ADHD 학생(혹은 의심 및 학습 부진 학생들)의 경우 집중 시간이 짧고, 주어진 학습과제를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습을 쪼개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정할 정도로 그 짜임새가 뛰어나고, 흥미로운 여러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교과서의 활동과 짜임을 심분 활용한다면 보다 큰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해야 할 활동을 제시할 때, 해결해야만 하는 최대치

를 “이것만 먼저 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하자”라고 제시하면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전부 다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의 경우 서술형 문제보다 단순 계산문제에 동그라미를 해 주고, 그 문제를 먼저 풀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채점을 해 준 후, 이거 하나만 더 해볼래? 라는 형태로 접근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적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일반 학생과 동일한 완성도를 보이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나타낸다.

3학년 영어책의 경우 각 차시별로 새로운 어휘/문장의 소개와 간단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게임은 몸을 움직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도가 매우 높다. 따라서 학습 집중력이 낮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삼거나 점수 기록자, 활동 이끔이의 역할을 줄 경우, 다른 과목으로까지 흥미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3차시는 writing 수업이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매우 취약한 부분인데 쓰는 것을 못하는데다가 같은 활동을 지속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쓰기 수업은 정확한 칭찬과 교정을 통해 학생들이 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써야 하는 글자를 점으로 찍어서 가이드를 잡아주고 따라 쓰게 하면 학생들이 쓰기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반면 보고 쓰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쓰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무의미한 활동이 될 수 있어 스스로 자신의 것을 만들면서 좀 더 발전시키는 학습 경험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는 부분을 극대화하고, 잘하는 것보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교과서의 활동은 최대한 잘게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교과서 활용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교과서 속에는 앉아서 하는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습 활동에서 더욱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 학생들의 산만한 흥미에 대한 집중으로, 낮아진 자존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변할 수 있다.

물론 중증의 심각한 학생들의 경우는 접근이 다를 수 있다. 위에서 예시로 제시한 방법들은 중증의 학생들보다는 경계선의 학생들과 그 외의 문제를 가진 학생들에게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어떠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이라 해도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개선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엄청난 전문성을 가져야만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상적인 것들로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매일 매일 만나는 학생들의 교과서. 그 교과서는 학생들이 구석에 낙서하고 귀퉁이를 찢는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하고 재미있는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는 놀잇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문제 학생들이 수업 전에 책을 펴고, 연필을 준비해 놓는 작은 기적이 생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머니가 사물함과 책상 서랍을 정리해주러 오던 학생이 과제로 제시한 수학 학습지의 반이나 스스로 풀은 날, 맨날 친구들과 주먹 싸움을 하던 남학생이 엄청난 집중력으로 색종이 탑을 만드는 그 때, “이거 꼭 해야 해요?” 하던 친구가 “한 문제만 더 해 볼게요”라고 이야기 하는 그 순간이 교사의 보람이고 학생들의 엄청난 변화인 듯하다. 그리고 그 변화의 순간을 응원하는 방법은 교실 안에서, 우리의 수업과 교과서 안에서, 얼마든지 제시될 수 있다.

필자소개

현재 남양주 천마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2011~2012년 이집트 재외 학교에 근무한 후 귀국하였다. 문화일보 '좋은 선생님' 편 34회에 소개되었다.



교과서 동시 선정의 뒷이야기와 문제점들



박 두 순

시인 /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부이사장

“시시하다. 재미없다. 깊이도 없다. 말장난 같다. 시의 맛이 적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동시에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말들이 따라다닌다. 어린이들과 동시인들이 지적하는 말이다. 한 마디로 집약하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이하 교과서로 약칭) 동시는 부실하다”가 되겠다. 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나, 부실한 작품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게다. 왜 부실할까? 부실의 근본 원인은 문학성, 예술성의 결핍 내지는 결여에서 온다.

교과서 동시는 우선 문학성, 예술성이 짙어야 한다. 시이기 때문이다. 시가 된 다음에 분석과 감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가 되지 않은 작품을 놓고 일반시니, 동시니, 시조니 따지는 것은, 옷의 첫 단추를 제자리에 끼우지도 않고 옷을 제대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교과서 동시는 이 점에 소홀하다. 시성詩性이 모자란다.

교과서 동시는 또 전범적(典範的)이어야 한다. 전범이 되는 작품은 성숙돼 재미와 감동을 준다. 어린이들은 교과서 동시를 시의 절대적 전범으로 볼 것이다.

‘아, 시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시를 처음으로 읽고, 감상하고, 쓰는 까닭에서다.

동시는 어린이들이 처음 맛보는 시여서, 시의 모유와 같다. 모유는 영양이 가장 풍부하게 그리고 골고루 배합된 어린이의 첫 음식이다. 어린이에게 이런 좋은 음식과 같은 시를 주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 교과서 동시는 소홀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작품 선정의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서다. 작품성(문학성, 예술성)도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먼저 교과서에 실을 만한 작품인가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시를 쓴 시인의 역량이나 문학적 성취도 살피기 때문이다. 이러면 수준 이하의 작품이 선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 동시는 어떤가? 작품성이 떨어지는 동시가 수두룩하다. 현재 교과서에는 100 편에 가까운 동시가 수록돼 있다. 이 가운데 작품성으로서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함량 미달의 동시가 거의 50%에 가깝다고 한다. 많은 숫자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째, 교육 목표에 따른 작품을 선정하는 데 지나치게 얽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절에 관한 동시를 고른다고 하자. 그런데 적당한 것이 없다. 이럴 땐 여기에 맞는 시를 대충 골라 넣는다는 것이다. 몸에 맞추어 옷을 지어야 하는데 옷에 맞추어 몸을 짓는 꼴이다. 이러니 수준 낮은 시가 들어갈 틈이 생긴다. 이럴 땐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개선문 같은 문화재가 있었다. 그리로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작아 통과하지 못할 형편이었다. 소방서에서 그것을 옮겨 달

라고 문화재청에 요청했다. 그러자 문화재청이 문을 옮길 것이 아니라 소방차를 줄여서 오라고 답했다. 이것이 맞다. 이럴 경우, 교육 목표에 시를 맞출 게 아니라 시에 교육 목표를 맞추어야 한다.

교육 목표에 맞는 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 교육 목표를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면 어정쩡한 시가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 교육과정 짜기의 융통성이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먼저 좋은 시를 선정해 놓고 그 시에 맞춰 교육 목표를 추출해 가르치면 아주 이상적인 시 교육, 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작가 선정의 문제이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면 문학적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작가의 작품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권위의 문제이다. 더구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문학이나 예술엔 훌륭한 작품에 대한 권위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또 필요로 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이것을 검증해서 작품을 신는다. 그 때문에 수준 이하의 작품은 실리지 않는다. 작가로서의 튼튼한 문학적 권위를 가진 시인의 시를 찾아 신는 까닭에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도 1980년대 이전엔 그랬는데, 어떤 일인지 요즘엔 그 과정이 생략돼 버렸다.

현재,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작가 면면을 살펴보자. 이름이 생소한 작가가 10여 명이나 된다. 일생을 아동 문학과 함께 살아온 작가들이 잘 모르는 동시인이라면, 작가로서의 문학적 성취가 그다지 다져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등단 10년 이하 작가 역시 10여명에 이른다. 이러다 보니 설익은 작품이 실리게 된다. 심지어 금방 등단한 신인의 등단작도 실렸다. 등단작이 실리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 작품 수준이 어려울 것인가. 심사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상생활 경험을 그대로 전달한 산문같은 작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등단작이 좋다고 해도 금방 실을 일이 아니다. 그 작가가 어느 정도 문학적 성취를 이룬 다음에 실는 것이 순서다. 등단작이 명작 수준인 정완영의 시조 '조국'이나 신경림의 '갈대'와 같은 문학적,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도 작가의 성숙을 기다린 다음 교과서에 실었다. 이렇게 하면 나무랄 일이 아니다.

비시인의 작품도 수록됐고, 일반시를 쓰는 시인의 작품도 실렸다. 시를 쓰다 어느 날 동시 몇 편을 쓰고, 동시집 한 권을 내었는데, 그 대접을 받고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는 영광(?)을 안았다. 평생 동시를 써서 동시문학사나 작품사에 획을 그은 동시인의 작품도 실리지 않았는데, 이름 좀 알려진 시인이라고 해서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다. 동시조가 교과서에 실린 한 시조 시인이 털어놓은 이야기이다. 교과서에 어떻게 해서 작품이 실렸는지 자신도 모르겠다고 했다. 딱 7편의 동시조를 썼다고 했다. 그 중 한 편을 어느 동시조 문예지에 실었는데 그것이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작품 선정 현실이 이렇다. 작가와 작품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검토 없이 오다가다 잡힌 작품을 교과서에 실었다는 이야기이다.

작품 수록이 특정 작가에게 쏠려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쪽에서 세운 선정 기준은 한 작가의 작품은 2편으로 제한했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쏠려 있다. 3편 실린 동시인이 3명이고, 4편 게재된 동시인도 2명이다.

아무래도 고개가 기울어진다. 이들 동시인이 우리 동시문학사에 찬연히 빛나는 윤석중, 이원수, 강소천, 어효선, 박홍근, 신현득 같은 작가보다 좋은 작품

을 많이 쓴 동시인인가. 어효선, 박홍근 같은 작가의 동시는 아예 실리지도 않았다. 수궁하기 어렵다. 이유 없는 쏠림 현상이다. 게재 원칙에도 어긋난다.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수준 모자라는 작품을 고르는 교과서 편저자의 안목도 문제다. 작품을 보는 눈이 모자라거나 자신의 취향대로 골랐거나 아니면 가까운 사람 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이렇다면 큰 문제다. 교육 목표에 맞는 작품이 없어 그랬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수준 높은 동시는 얼마든지 있다. 아니 많다. 아마 그런 자료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랬다면 작가나 관련 단체 등에 자료 협조를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교과서 동시 선정은 임시방편이나 땀질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새로 개편될 교과서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어린이에게는 모유 같은 동시를 먹여야 하는 것이다. 동시의 본질을 어린이에게 맛보이자. 어린이들이 참된 아동문학, 예술의 향기를 접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알찬 동시를 선정하는 것이 절대 옳다.

고만고만한 동시는 빼고 자타가 공인하는 알찬 동시를 실어야 한다. 어린이가 즐겁게 읽는 것은 물론 위우고 싶을 동시를 실는 게 옳다. 교과서의 동시 같은 좋은 동시를 더 읽히려는 교사가 우수 동시집을 골라 읽히도록 지도 교과서에 명기하면 될 것이다.

시 선정을 위해 동시 선정 자문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 작품과 작가 검증은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니면 아예 동시 선정을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할 때 비로소 작품 선정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나 제의를 부디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빛나는 시가 교과서에 가득차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런 의견을 내놓는다. 좋지 않은 동시를 읽히는 것은 어른이 어린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끝으로, 이러한 논의나 제의를 부디 불평불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빛나는 시가 교과서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이런 의견을 내놓는다. 좋지 않은 동시를 읽히는 것은 어른이 어린이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필자소개

〈아동문학평론〉 〈자유문학〉에 시와 동시 신인상 당선
동시집 〈나도 별이다〉 〈들꽃〉 등 11권과 시집 〈행복 강의〉
등 2권

대한민국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월간문학
동리상 등 수상

초·중등 국어교과서에 시, 동시 6편 실림
현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초·중등 영어교육 연계성 확립 방안에 관한 고찰



서 혜 진

서울 경문고등학교 교사



필자가 교육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영어가 결코 즐길 수만은 없는 대상이란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중학교 1학년 때였다. 필자는 초등영어 우수생이 한국의 중등영어체제에 안착하기까지의 그 우여곡절을 ‘영어와의 애증 관계’라 필자는 칭하곤 하는데, 수년이 지난 후 교단에 섰을 때, 학교현장에서 마주한 학생들에게서 중등영어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적응을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영포자(영어 포기자) 현상의 심각성은,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 보편적으로 확립된 “공립 초·중등 영어교육 연계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먼저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지도하시는 분들께 두 교육과정의 “연계성”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파악이 되는지 묻고 싶다. 영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폭넓은 교양 및 문화 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능력을 수행하기(교육과학기술부, 2011, pp.3)란 목표 안에 두 교육과정 모두 공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두 교육과정상의 영어교육은 그간 어찌면 소통 없이 각기 다른 체제 아래 있었기에 이 논의의 필요성에 관한 언급 자체에 호기심 반 우려 반을 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필자는 초·중등 영어교육,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진급 대상자들을 위한 영어교육에 있어 “연계중간교육”이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현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교육활동에 필히 언급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을 준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왜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 사이의 연계성을 논하는가?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우리나라는 교육의 방향성과 교육현실에 맞추어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논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대에 발맞춘 교육의 실천’이라는 이상적 목표를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였다. 수시개정의 첫 사례가 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영어 교과 총괄목표에서 필자가 주목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초등학교 영어의 목표”와 “중학교 영어의 목표”라는 학교급별 영어과 목표를 분리하여 구체화한 대목이었다. 이는 총괄목표->구체적인 목표->학년별 성취기준의 종적 연계성에 학교급간의 연계성을 추가시킴으로써 목표체계에 관한 연계성을 한층 더 강화시킨 것이 교육과정 상의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학년군”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말미암아 학년간의 연계성도 도모하고자 한 면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급”과 “학년군” 체제의 이면에는 체제의 변화를 겪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공통 교육과정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보완책이 없다는 문제점이 병존한다.

교육과정이 놓친 ‘상위학교 진급 대상자’에 대한 배려의 부재를 수시개정체제 전환의 첫 신호탄이었던 2013년 중학교 1학년의 경우 특히 심각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초등학교에서는 음성 언어 중심으로 교육하고,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영어를 학습해왔다. 그러나 “문자 언어 교육은 쉽고 간단한 내용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내용으로 하되 음성 언어와 연계하여 내용을 구성한다.”는 조항이 반영된 2009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가 2015년이 되어야 현장에 배포되는 전환 시점에서 중학생으로 진급하였고, 5~6학년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연계성 여부와 정도가 현장에 인식되지 못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과서를 받아들게 되었다. 특히 “의사소통 기능 강화”와, 학생중심의 “창의성 및 논리적, 비판적, 사고력 배양”을 돕는 고차원적인 소재와 활동을 다루는, 급격한 수준 상승을 마주한 학생들의 혼돈은 학기 시작 후 뒤늦게 전달된 교사용지도서로 인해 개정 교과서에 적합한 교육을 위한 수업연구가 부족했던 일선 교사들의 혼란까지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중등 영어에 대한 압박감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야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초·중등 영어 교육과정에서 제1순위로 강조되는 “학생들의 흥미도”가 과연 유지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초·중등 영어 교육과정 종사자가 모두 함께 만들어내는 “연계 중간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중학교 영어 부적응과 영포자(영어 포기자) 현상에 대처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한국 공교육 내에서 초·중등 영어 교육간의 연계성이 학교현장에서 부재함을 여실히 볼 수 있는 현장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3년 8~9월, 서울시에서 ‘보통’ 수준의 교육열과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기준 ‘중간’ 정도의 성취도를 나타낸 2~3개 지역구에 속한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선생님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 연계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필자는 상대 영어 교육과정 및 지도법에 관해 교사가 이해하고, 현장에서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현시키려는가 여부와 지금까지의 관심도를 묻는 문항 5개를 설문에 포함시켰다. 초등 5, 6학년을 지도하는 교사와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응답을 통해





연계된 결과는 연계성 있는 영어교육 실천의 필요성과 ‘아래(현장)로부터 위(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아우르는’ 연계성 있는 영어교육에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초등 교사	1. 초등 5, 6학년생들이 진학해 배우게 될 공립 중학교의 영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중등 교사	1. 중학교 1학년(신입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어떠한 영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습했었는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충분히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보통	④ 잘 모르겠다.
초	6 (20%)	11 (36.7%)	6 (20%)	7 (23.3%)
중	0 (0%)	17 (56.7%)	8 (26.7%)	5 (16.7%)

(1-①~③ 답하신 경우) 상대 영어 교육과정 및 교수법과 연계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확실히 모르겠다.	③ 아니요
초등: 총 23명	13 (56.5%)	9 (39.2%)	1 (4.3%)
중등: 총 25명	4 (19.2%)	9 (34.6%)	12 (46.2%)

(1-④ 답하신 경우) 상대 영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파악하게 된다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확실히 모르겠다.	③ 아니요
초등: 총 7명	4 (57.14%)	3 (42.86%)	0 (0%)
중등: 총 5명	4 (80%)	1 (20%)	0 (0%)

초등 교사	2. 초등 영어교사로서 중등 영어 교육과정 혹은 중등 영어교사의 교과 지도방법을 이해할 만한 자료 혹은 교사교육(연수, 재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중등 교사	2. 중등 영어교사로서 신입생들이 영어를 학습해 온 환경에 관심을 갖고, 초등 영어 교육과정을 이해할 만한 자료 혹은 교사교육(연수, 재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③ 자료, 교사교육을 받은 적은 없으나, 교사 본인이 학생시절 받았던 중등 영어교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여겨 어느 정도 추측하고 있다.
초	10 (33.3%)	19 (63.4%)	1 (3.3%)
중	1 (3.3%)	21 (70%)	8 (26.7%)

초등 교사	3. 초등 영어교사로서 미래에 학생들이 학습해 갈 중등 영어 교육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선생님의 수업에 일부 반영해 보셨습니까?		
중등 교사	3. 중등 영어교사로서 신입생들이 학습해 온 초등 영어 교육과정/교수법과 관련한 자료를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선생님의 수업에 일부 반영해 보셨습니까?		
	① 개인적으로 찾아 수업에 반영한다.	② 개인적으로 찾아봤으나 수업에 반영은 하지 않는다.	③ 개인적으로 찾아보지 않았다.
초	14 (46.7%)	6 (20%)	10 (33.3%)
중	6 (20%)	9 (30%)	15 (50%)

중등 교사	4.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면서 느끼시기에 선생님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초등 영어와 중등 영어 교육과정의 차이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확실히 모르겠다.	③ 아니요
중	7 (23.3%)	12 (40%)	11 (36.7%)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그나마 지도 학생들의 진학 대상인 중학교에 관련된 영어교육을 의식하고, 소수이긴 하지만 중학교 영어교육에 관한 자각을 통해 연계성 있는 영어교육이 실천되도록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에 비해 중학교 영어교사들의 대다수는 초등학교 시절의 영어교육에 관한 관심과 체제 전환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학생들의 혼란에 대해 연계성의 관념을 가지고 영어교육에 접근하려는 교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교사의 탓만 할 수는 없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그간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에 관한 몇 줄의 언급만 있었을 뿐, 시작에서부터 초등과 중등은 넘을 수 없는 담장을 쌓아놓고 교사 양성이 이루어져 왔고, 교사가 된 후에도 초등교사와 중등교사는 교류할 접점조차 없었다. 영어 전담교사의 자격을 가진 초등교원이 지도 하던 영어교과가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들어서면서 중학교 영어교육의 경험이 있는 영어교사들이 일부 유입되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중학교에도 초등학교의 교육 실정을 아는 교사들이 늘어났지만 범(凡)교육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교육과정, 교수법, 교과지도의 연계성 확립을 발전시킬 수준은 되지 못한다.

교육현장에 연계성 있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교사 재교육을 위한 의무 직무연수 등을 통해서 초등 영어교사와 중등 영어교사가 만날 매개를 형성시키고 현재의 각급 학교의 교육현장의 영어교육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로가 생각했던 상대 교육과정과 현장에 대한 생각과 오해, 요청을 나누는 발전된 방향의 영어교육을 위한 해결책을 귀 기울여 들어볼 교육 온·오프라인 포럼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다면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에 관해 논하고, 전(全) 교육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창의적, 인성 기반 영어교육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초·중등 영어교육의 연계성이 반영된 교과서를 위한 제언 : 교사와 학생이 채워가는, 교육현장에서 진화하는 교과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과정과 초등학교 교과서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흥미를 일으킬 수 있었던 조건은, 학생들에게는 스스로 학습한 바를 적용하고 체험해 볼 기회가 주어지고, 교사들에게는 교과서의 문자가 적은 부분이 ‘여백의 미’로 해석되어 교사들의 교육연구가 꾸준하고 치열히 이루어져 왔다는 데 있었다. 그에 비해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는 중등 영어 교육과정이 제시한 기준에 따랐다고는 하나 과연 같은 출판사 안에서 함께 출판되는 초등학교 교과서 저자와, 중학교 교과서 저자들 간에 연계성 있는 교과서에 대한 의논과 교류가 있었는지에 관해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급격한 문자 및 학습량의 증대가 엿보이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물론이고 중학교 영어교육에서 강조한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세계화에 걸맞은 인재의 양성(교육과학기술부, 2011)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근 교과서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의 방향성이 지식의 양의 확대가 아닌, 질적인 증대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 제작자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과서 제작자 입장에서 제시하는 교사용 지도서보다는 많은 교사들과 연구와 고심을 거듭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교사와 학생이 채워가는, 언어 구사능력과 더불어 학생의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project형 교과서로서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담은 가이드와 교과서 활용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저자 차원의 연수 및 강연을 바탕으로, 교과서의 가치를 현장에서 평가받을 것을 제언한다.

더불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과 같이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축해야 하는 학년의 교과서의 경우, 어휘수 등이 현행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3학년과 같이 학년군으로 묶여져 있으므로 제작 단계에서 각 교과서의 필자들이 협의를 거쳐 학습자들의 중학교 영어교육 체제에 적응을 도울 수 있게끔 난이도를 세심하게 조정하고, 교과서 검정단계에 있어 두 학년간 연계성을 다른 학년간 교과서 검정보다 더 구체화시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 연계성에 대한 검정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초·중등 영어교과 연계성 검정 평가기준 제언]

해당 학년	평가영역	평가내용
초등학교 6학년	교과 연계성	1. 교과 내용과 수준이 전후 학년간 연계성 및 위계성 있게 구성되었는가?
중학교 1학년		2.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前 학년에서 기초 학습된 것으로서, 연계성 있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룰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3.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군별 사용 권장 어휘수는 충실히 고려되었으며, 단원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였는가? 4. 의사소통 기능과 언어 형식은 단원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반복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는가? 5. 해당 학년에서 필수적으로 학습되어야 하는 교과 내용 및 언어 형식, 기능과 수준에 따라 학습되어도 좋은 내용이 전후 학년 간 수직적/수평적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이러한 교과서 학습내용의 방향성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그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교육 포털사이트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이 요청하고 교과서가 현장에 제시한 주제에 관해 학생들이 탐구하고 체험 활동 한 후 스스로 완성하는 Project를 진행해 그 결과물을 교육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ject 결과물의 형태는 보고서, UCC와 같은 동영상, 강연회 형태, 미술, 음악, 가정 등 타교과와의 협력 수업 등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주제에 관한 다채로운 접근법을 교사와 학생과 함께, 교육을 연구하는 교육계 전체가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교과서 중 추가할 것, 편집해야 할 것, 국가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하여 수정 개정해야 할 것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은 의사소통 중심 등 활동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학생성취도 평가방식은 여전히 진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학생들의 지적 성취도를 5感を 자극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중학교에서조차 학생의 영어 능력 수준에 따른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준별 수업은 영어 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심리적 소외감을 일으키고 차별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교과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 수준, 집중적으로 목표하고자 하는 언어의 기능과 주제를 접목시킨 많은 정보를 제시하면 현재 상, 중, 하로 나뉘어 지도하는 현장의 영어교사들이 각자 해당 학년을 위해 제시되어 있는 학습내용을 재조직하여 교사가 지도하기에 적합하고 학생들에게 유기적으로 언어 기능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끔 재편집하여 활용할 교과서를 제시하는 ‘같은 교육목표를 가진 다양한 교과서’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교과서와 수업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 효율을 도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급속히 짧아지는 지식 교환주기와 역동적인 디지털 매커니즘,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기된 디지털 교과서(하화주, 교과서연구 2012)가 교육현장에 보편화되면 더욱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과서의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발굴된 초등 영어교육과 중등 영어교육에서의 우수 교수학습 활동 학교 및 교사를 선정, 초등-중등 구분 없이 그들의 수업을 교육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하여 널리 알리는 등 다양한 사례를 축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부 공립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동료장학, 연구 수업 등이 통과의례가 아닌 교육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방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포상을 하는, 비판적인 ‘당근’과 긍정적인 ‘채찍’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필자소개

경희대학교 영어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동북초등학교에서 수준별 영어Immersion교육을 지도 및 기획하는 한국인 수석교사 역임, 이후 서울 수유중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는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성공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을 전공, 초등영어로부터 중등 영어로의 전환 시기에 학교현장에서 빈번히 목격되는 ‘영포자(영어 포기자)’ 문제가 초등-중등간 연계성의 부재로부터 발생 될 수 있는데 주목, 영어교육 연계성에 관한 교육과정, 교과서,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석사논문 <한국 공립 초중등 영어교육 연계성 확립방안 연구>를 마무리, 2014년 2월 석사학위를 수료하였다. 현재 서울 경문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며 한국 영어교육에서 학교 급간에 보편적으로 실현가능한 연계중간교육의 더 큰 방향성을 고민하고자 현장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일본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기술 현황과 전망



남 상 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1. 머리말

지난 1월 28일, 일본 정부는 교과서 기술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해설서(이하, 해설서로 표기)를 개정하여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4월 4일에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은 영토교육을 강화하는데 반해 한국의 독도교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¹⁾ 본고에서는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현황, 전망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독도기술 추이와 현황

(1) 학습지도요령해설서

일본 교과서제도는 검정제도로, 교과서 집필과 검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지도요령이다. ‘의무교육 제 학교 교과용도서 검정기준’을 보면 “도서의 내용 선택 및 취급에 있어서는 학습지도요령의 총칙에 제시된 교육의 방침,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목표,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내용 및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된 내용의 취급에 비추어 부적절한 곳이나 기타 아동 또는 생도가 학습하는데 있어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지도요령은 대강(大綱)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해설한 해설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집필과 검정의 실질적인 기준이 된다.

한국 교육과정에는 독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본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내용은 없다. 독도

1) “일본은 상급학교 갈수록 영토·역사교육 늘리는데 韓 역사교과서 영토 부문 달랑 3쪽”(『매일경제』(인터넷판) 2014.4.6)

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명기한 일본 해설서는 2008월 7월 14일 발표된 중학교 해설서(지리)뿐이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竹島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취급, 북방영토와 동일하게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해설서(지리)에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라는 기술만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금년 1월 28일 개정된 중·고등학교 해설서를 보면, 독도 교육의 필요성을 기술한 과목이 중학교의 경우 지리에서 지리, 공민, 역사로 확대되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리(A/B)에서 지리(A/B), 정치경제, 현대사회, 일본사(A/B)로 확대되었다. 그 내용도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을 두어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로 바뀌었다. 바뀐 해설서는 올해 검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가 내년 3월에 발표되는 중학교 교과서부터 적용된다.

(2) 교과서

가) 개요

지난 4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와 현재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현황

	교과서			지리부도		
	과목	종수	독도기술 (지도 포함)	종수	독도	
초등학교 (2014년 검정통과)	사회(3·4학년)	4	3	2	2	
	사회(5학년)	4	4			
	사회(6학년)	4	4			
	소계	10	8			
중학교 (2011년 검정통과)	지리	4	4	2	2	
	역사	7	3			
	공민	7	7			
	소계	21	14			
고등학교 (2012·13년 검정통과)	지리 지리	A	6	8	8	
		B	3			3
	일본사 일본사	A	7			5
		B	8			4
	세계사 세계사	A	9			1
		B	7			2
	정치경제	8	7			
	현대사회	12	9			
소계	69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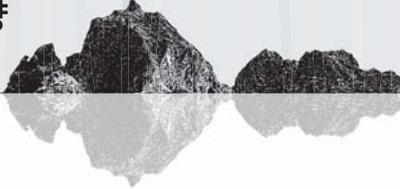


표1에 나타나있듯이 일본의 경우 독도가 기술된 교과서는 지리와 공민이다(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는 5학년은 지리, 6학년 상반기는 역사·하반기는 공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교과서의 경우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경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같은 역사 교과서라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를 기술하고 있는 한국 교과서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또한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 분량은 매우 적다. 금년에 발행된 한국 중학교 사회2(지리) 교과서 6종의 독도 관련 내용은 평균 13.3쪽이라고 하는데,²⁾ 일본의 경우 가장 상세하게 기술한 중학교 자유사의 공민 교과서도 1쪽에 불과하다.

나) 기술 내용

(1) 추이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추이를 보면 2001년 이후 급속히 관련 기술이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³⁾ 기술 추이를 중학교 지리와 공민 교과서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 표2-1, 표2-2와 같다.

〈표2-1〉 일본 중학교 지리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

검정통과 연도	종수	기술+지도	기술	지도	계(백분율)
1955	19			1	1(5%)
1971	8			2	2(25%)
1974	8			1	1(13%)
1977	8			3	3(38%)
1980	8		2	2	4(50%)
1983	8		2	2	4(50%)
1986	8		1	3	4(50%)
1989	8		1	4	5(62%)
1992	8			5	5(62%)
1996	7			4	4(57%)
2001	7	1		6	7(100%)
2005	6	2		4	6(100%)
2011	4	4			4(100%)

〈표2-2〉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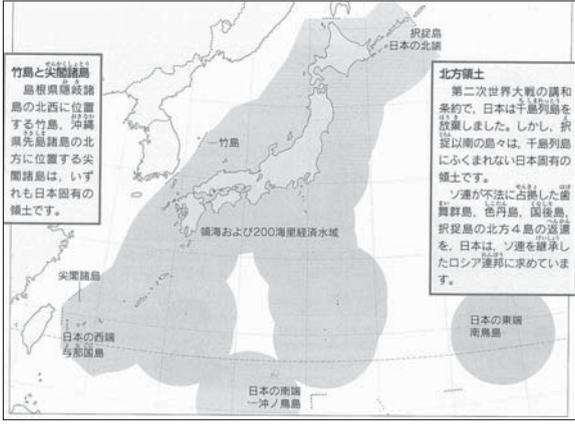
검정통과 연도	종수	기술+지도	기술	지도	계(백분율)
1961	13			1	1(8%)
1971	8			1	1(13%)
2001	8	1		1	2(25%)
2005	8	3		1	4(50%)
2011	7	6		1	7(100%)

2) 『매일경제』(인터넷판) 2014.4.6

3)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남상구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vol.01』 2011,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현황」 『영토해양연구 vol.03』 2012 참고

동경서적 공민교과서는 교과서 기술 내용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동경서적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독도기술 변화

검정통과 연도	내용	검토
<p>2001년 검정통과</p>	<p>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p.145)</p> 	<p>독도 표기는 없으나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p>
<p>2005년 검정통과</p>	<p>일본의 영해와 경제수역(p.155) 〈竹島와 센카쿠제도〉 시마네현 오키제도의 북서에 위치한 竹島,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의 북쪽에 위치한 센카쿠제도는 모두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p.155).</p> 	<p>독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국경선을 그어 일본 영토에 포함시킴. 또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설명이 추가됨.</p>



2011년 검정통과	<p>일본의 영역과 경제수역(p.151)</p> <p>竹島는 ‘오키제도 서북쪽에 위치하고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어,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p.151)</p>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은 한국에게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	----------------------------------------------------

(2) 현황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가운데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의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독도에 대해 ‘고유의 영토’, ‘불법점거’라고 기술한 교과서 현황

	초등학교(2010년 검정통과)	중학교(2011년 검정통과)	고등학교(2012,13년 검정통과)
고유의 영토		지리 : 4종 중 3종 공민 : 7종 중 4종 역사 : 7종 중 1종	지리A : 6종 중 3종 지리B : 3종 중 2종 현대사회 : 12종 중 4종 정치경제 : 8종 중 1종
불법점거	사회 : 5종 중 1종	지리 : 4종 중 1종 공민 : 7종 중 3종	현대사회 : 12종 중 1종 일본사B : 8종 중 1종

표4를 보면 1월에 개정된 해설서와는 달리,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4월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일본 ‘고유의 영토’는 5학년 사회 4종 중 3종에, ‘불법점거’는 5학년 사회 4종 중 3종, 6학년 사회 4종 중 3종에 기술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일본 고유의 영토, 竹島와 센카쿠제도: 시마네현의 竹島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1954년부터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논의하여 해결하자고 한국에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교육출판 초등학교 5학년 사회(上))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교육출판의 5학년 사회(上) 교과서에는 독도에 관한 기술은 없고 독도를 竹島로 표기하고 국경선을 그어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가 들어가 있다. 이번 검정 결과는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변화를 확연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이미 작년 4월에 검정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금년 1월의 해설서 개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출판사가 선제적으로 개정된 해설서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해설서가 발표된 것은 금년 1월이나 해설서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12월 아베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즉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정부차원에서 강화되고 있는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주장, 일본 사회의 보수와 경향, 2001년 이후 약화되고 있는 교과서의 독도기술 흐름이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기술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도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해상의 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점거하고 있어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동경서적 중학교 지리)

“시마네현에 속하는 竹島는 한국과 영유권 문제가 있다”(청수서원 고등학교 지리A)

다만 아래와 같이 일본과 한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도 적지 않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竹島(시마네현)에 대해서도 한국과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국서원 중학교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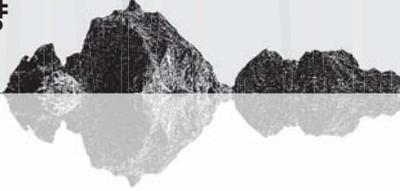
“일본해에 위치한 竹島(시마네현)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영유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어,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교육출판 중학교 공민)

하지만 금번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한국 교과서가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국제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 교과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일본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술한 것은 중학교 공민 교과서 3종(자유사, 육봉사, 청수서원)과 중학교 지리 교과서 2종(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에 불과하다. 이들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일본 영유권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일본은 17세기 중엽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으며,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했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 제시된 주장들은 학문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위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3. 전망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에서 교과서 기술과 검정은 해설서를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갔다. 금년 4월 검정결과가 발표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개정된 해설서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선제적으로 개정된 내용을 교과서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2010년 센카쿠제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동년 9월 일본 정부 센카쿠제도 국유화를 둘러싼 일중 간 갈등을 계기로 일본 국민들의 독도와 센카쿠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자민당이 민주당의 센카쿠제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약체외교라고 비판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일본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⁴⁾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일본 초·중·고의 모든 지리, 공민,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기술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국제법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근거들이 교과서에 기술될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다케시마(竹島) 홍보 동영상’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롯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이 이루어졌다.

4. 맺음말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영토주권 행사를 부정하는 부당한 것이나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 교과서에 아무리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된다고 해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근거한 정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일본의 청소년들이 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영토인식과 역사인식을 갖게 된다는 데 있다. 교과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해 불신을 갖게 된 청소년들이 나라의 주역이 되었을 때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까.

우리 교과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독도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논리를 토대로 일본 교과서의 독도기술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필자소개

1991년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2005년 지바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며 전공은 일본현대사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전후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추이와 현황’, ‘새역모’ 발간 교과서의 검정실태에 나타난 일본교과서 검정제도의 문제점’,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기술 변화’ 등이 있다.

4) 이명찬 「일·중 간 센카쿠제도 분쟁과 일본의 대응」 『영토해양연구 vol.03』 2012 참고



교과서 미신 (迷信)



함 수 곤

국가교육과정 정책 자문위원

우리는 흔히 정직하고 성실하며 반듯한 모범생을 가리켜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또 어떤 일을 원칙을 지키며 바르게 처리하면 ‘교과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말을 듣는 수도 있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나 ‘교과서 같은 방식’이란 표현은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면도 숨어 있는 것 같다.

첫째, 일탈하거나 튀지 않고 정상적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좋은 의미로서, 표준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 표현으로 들린다.

둘째, 융통성과 창의성이 없고 답답하고 한심하다는 의미로서 시대에 뒤지고 무감각, 무기력함을 은근히 야유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런 비유가 그대로 계속 적용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교과서 같다’는 비유는 대부분의 경우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사실이며 비난보다는 칭찬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학교교육의 초기부터 교과서는 바로 교육의 목표이고 내용이며 방법이었고 필수적인 존재였다. 근대 교육이 도입되어 제도적 공교육의 시작부터 교과서는 학교교육, 바로 그 실제적 의미로 존재했다. 즉 학교교육은 다름 아닌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교과서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일 정도로 교과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연히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운영되어야 할 학교교육은 지금까지 교과서의 지배 아래 획일화되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른채 굳어져 버린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교과서야말로 학교 교육에서 참으로 막강한 위력을 지닌 유일한 경전이었고,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학교교육의 모든 힘과 성과는 교과서로부터 나오고 있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었다.

근래 거의 전 국민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의무 교육처럼 수료했으므로 다른 책은 몰라도 최소한 교과서라는 책과는 누구나 12년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를 상용(常用)하며 성장기를 보낸 셈이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혁명적 진전에 따라 학생 교육에 교과서보다 훨씬 더 가치 높고 효과적인 첨단 교육자료가 속속 출현되었지만, 교과서는 학교교육에서 다른 교육자료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위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요지부동의 ‘철밥통’이고 ‘특권층’으로 군림해 왔다.

지금도 교육 관계 당사자와 사회의 모든 이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 표에 따라 차근차근 가르치는 것이 학교교육의 전부라는 것을 의심하는 이는 거의 없다. 교사가 교과서를 해설하고, 주요 요소를 판서하고, 학생들은 그 판서를 받아쓰고, 그것을 암기하고 재생하는 훈련의 반

복을 학교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인 것 같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이러한 획일적인 대량 교육을 받고 성장한 한국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치 봉어빵 틀로 구워낸 봉어빵과 같은 동일한 규격품이 되고 말았다. 5천만 국민 중에는 봉어빵과 단팥빵, 도너츠, 찹쌀떡, 토스트 등 여러 가지 재료의 맛과 모양의 빵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야지 이처럼 똑같은 봉어빵 일색이라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인들을 봉어빵으로 구워낸 무쇠틀 역할을 해 온 괴물이 바로 교과서인 것이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동일한 교과서가 동일한 진도에 의해 개성과 적성과 소질과 꿈이 천차만별인 우리 아이들을 동일한 정답을 암기하고 있는 동일 규격품으로 대량 생산해 낸 것이다.

그렇다고 교과서의 봉어빵 획일화 기능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교과서는 그간 막강한 위력을 발휘해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자질 및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대량 생산된 봉어빵들은 국가 건설 초기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필요했던 폭발적 인력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공을 세웠다. 그 결과 오늘의 민주 발전과 세계 10위권 경제 건설의 위업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시대는 격변해서 국가 사회의 정치, 경제, 기술, 문화, 예술 등의 모든 상황은 농경 사회와 산업 사회 시대와는 구조적, 질적인 면에서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제 동일한 교과서 틀에 의해 대량생산된 동일 규격품 인재들은 점점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자신은 물론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기도 어

렵게 되었다.

이제 교과서에 주어진 지식 속에서 정답을 찾아 암기하고 있는 봉어빵들은 어디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스스로 지식을 생산하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불분명한 미지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내고,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을 창안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생성된 지식과 기존 문화유산을 잘 요약 정리해 놓은 교과서를 순서대로 섭취하고 암기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설혹 그러한 작업과 연습이 필요하다더라도 사람의 두뇌에 힘들게 저장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꺼내서 활용할 수 있는 유능하고 간편한 저장고가 바로 옆에 비치되어 있거나 편하게 휴대하고 다닐 수도 있는 디지털 스마트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교과서의 기능, 교과서의 구조와 내용, 교과서의 활용 방법, 교과서의 형태 등이 모두 과거와 대폭 달라져야 할 것이다.

과거 교과서가 누려온 거대한 권력은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과거형 교과서의 종언을 고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이제 어느 학교에서도 교과서가 과거와 같이 학교교육에 군림해서 특권을 계속 누리기 어렵고 성전(聖典)과 같은 대접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의 교과서는 그동안 독점해온 학생교육의 유일한 성전의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교과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그들의 행복과 국가 사회,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인간으로 길러 내는데 필요한 수없이 많은 교육자료 중, 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다른 우수한 자료들과 함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임무를 적절히 분담는 데 동의하고 만족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로서는 슬픈 일이지만 기득권의 축소와 포기는 불가피한 일이다.

교과서를 직접 사용하는 교육자, 학부모들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교과서만 만병통치약처럼 끌어안고 강제로 투입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보다 약효가 높고 효과적인 처방과 투약을 병세에 적합하게 선택하고 적용하는 전문성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먹을 것이라곤 오직 밥밖에 없던 시대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밥 이외에도 성장기에 더 영양이 풍부하고 먹고 싶어하고 먹기 좋은 적합한 먹거리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선택의 지혜가 따라야 할 것이다. 만일 변화를 외면하고 안일하게 공급자 편의 중심으로 밥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교육을 망치고 국가와 국민을 골병들게 할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생각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과서의 미신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학교교육의 주기능(主機能)이 ‘단편 지식의 전달 주입’에서 ‘학생의 자아실현 돕기’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교과서 지식 전달이 학교교육의 주기능이었던 시대의 교과서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는 학교교육 시대의 교과서가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 없이 비전문가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교과서는 강의 요항형이나 지식 요약 정리형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한다. 학습자 주도적인 ‘활동 중심의 역동적 학습’을 적극 유도하고, 안내하고, 동기를 유발하고, 스스로 학습한 사항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갖춘 ‘학습의 지휘본부’와 같은 교과서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이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교과서를 가르치고, 중간고사, 기말시험 봐서 점수, 석차 매기고,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시켜서 졸업시키고, 이런 일은 가만히 두어도 학교에서 늘 해온 방식대로 잘 알아서 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정치가나 국민이나 언론 등에서 대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입만 열면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니 창의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기초 공통교육에서 지금 학생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교육자료로,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학교에 통째로 맡겨놓고 방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금까지 학교교육의 주식(主食)이었던 교과서에 관해서는 그 연구개발과 개선 작업을 극히 소홀히 해왔고 관련 전문가도 희귀한 형편이다.

학교폭력, 사교육비 부담, 무료급식 등과 같이 시끄럽고 선거의 표수와 관련된 이슈만 붙들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정치가나 교육부처의 땀질 처방이고 업무 스타일인 것 같다. 교육의 본질은 도외시하고 이런 일만 치중한다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암담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기초기본을 기르는 학교교육은 그냥 두어도 지금까지 늘 해온 방식대로 잘 굴러갈 것이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모두 안심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고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의 기초공통교육은 항상 세계 어느 국가에서나 최우선 혁신 과제이다. 국민의 자질과 능력, 도덕

심, 창의성 등은 바로 초·중등교육에서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창의성과 도덕성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교과서 풀이 중심의 지식전달 주입교육이 여전히 성행하고, 교과서의 미신과 맹신이 아직도 그대로 춤추고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위기와 문제는 없을 것이다. 교육의 품질이 낮으면 경제도 국력도 안보도 문화 예술도 모두 잘 될 수 없을 것이다.

교육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핵심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과 전문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교육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이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교육여건 조성, 관리 행정 편중의 절름발이 교육부처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책임지고 연구하고 관리할 전문적인 교육내용 행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고비용 저질교육을 고품질 교육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첫 길이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 전 교육부 편수국장
-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영국 런던대학교 방문 교수
- 일본 국립 동경학예대학교 대학원 졸업
- 일본 교과서 연구센터 방문 교수
-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실무 책임자(교육과정 담당관)
- 전 교육부 교과서 발행심의위원장
- 전 ‘한밤의 사진편지’ 대표 겸 편집주간
- 전 교과서 발행 심의 위원장
- 현재, 국가교육과정 정책 자문위원
- 저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과정의 편성’, ‘함수곤의 編修 交遊記’, ‘교육과정 장학의 이론과 실제’, ‘파리노트’ 등

교과서와 함께 크는 아이들

-사람이 먼저다-



김 순 자
(주)대명사 실장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벚꽃이 일찍 고개를 내밀었다. 인터넷과 SNS에는 연분홍빛 벚꽃길을 올린 사진들로 가득했다. 저 속에 나도 들어가 봄의 향연을 맛보고 싶다는 생각과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리고 찾아온 여유, 새싹의 기운과 연두의 욕망에 이끌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구룡산에 오르기로 했다. 아파트를 끼고 만들어진 이곳 등산로는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의 자연과 벗하는 짧은 휴식은 나에겐 아이스크림 디저트의 달콤함과도 같다. 따스한 봄볕과 봄바람의 살랑임을 느끼며 걷는 오솔길 여기저기 눈에 보일듯 말듯 작은 들꽃과 쭉 연두로 피어오른 풀들은 나의 시선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었다. 오솔길을 지나 나타난 연분홍과 다홍빛 철쭉은 봄의 찬란함 그 자체였다.

당시 내 생각속의 교과서는 누구나 만들수 있는 것이 아닌 아주 특별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나보고 교과서 편집을 하라니 '그게 어디 쉬운일이야' 작업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오타와 삽화 사진에 대한 저작권 등등 결코 쉬운 일은 아님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간의 단행본, 잡지, 소식지 등의 편집 경험으로 '뭐 못할것도 없지' 하는 생각으로 조금씩 스스로를 격려했다.

내가 하게 될 작업은 큰 출판사에서 몇 억씩 투자해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큰 프로젝트에 대한 부담에 잘못이루게 하는 큰 작업은 아니었다. 일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소신껏 만들면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검토 과정을 거쳐 합격이 되면 교육감 인정 도서가 되는 그런 교과서였다.

내가 생각하는 체육 교과서는 배구, 농구, 축구 경기 등의 기술, 규칙, 규범을 외우면 되는 시험기간에만 잠깐 필요한 책, 가장 깨끗한 교과서였던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운동장 수업이 많았던 체육 선생님의 얼굴은 언제나 거무잡잡하고 항상 체육복 차림이었다. 지금 박태환이나 기성용, 이동국처럼 멋진 근육질의 지성을 찾기는 힘들었던 말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해서 내 머리 속은 실타래처럼 엉켜 복잡했다. 회사의 월급을 받은 이상 내 맘대로 하고 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생각을 바꾸자 체육활동에 대한 내 안의 못된 고정관념과 편견부터 바로 잡아 보리라.

일단 원고를 받았다. 삽화가 멋드러진 것도 아니고 사진이 근사한 것도 아니고 휴~ ‘대략난감’ 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된것은 선생님들께서 나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다. 다른 선생님들은 방학동안 해외여행 등 자기 자신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데 집필진 선생님들은 무더운 여름방학내내 책을 쓰기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셨을까 생각하니 책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책의 내용이 참신했다. 스포츠 자체의 문화와 스포츠가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실천되면서 만들어진 주변 문화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구성하여 스포츠를 총체적으로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과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오래전 내가 배웠던 스포츠의 기술, 규칙, 규범만을 말하는 재미없는 교과서가 아닌 역사와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책에 대한 애착이 조금씩 생기면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읽히는 체육 교과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형출판사에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집필하는 교과서처럼 탄탄한 짜임새와 세련미는 좀 떨어지겠지만 선생님들의 뜻을 충분히 담아 보리라.

1차 편집이 끝나고 수정본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수업을 마치고 허겁지겁 달려오신 선생님 원고를 모두 고쳐서 새로운 파일을 가져왔다는 말을 건넸다. 그럼 나더러 처음부터 편집 작업을 모두 다시하라는 말씀이신가? 한두 페이지도 아닌것을...

이러고도 다시 뒤엎기를 몇 차례 더 반복했다. 고치고 또 고치고 도를 닦는 심정이었다. ‘그래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 쉬우면 재미도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 하지 않나?’ 이렇게 교과서와 씨름을 했다.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기 시작했지만 나의 일상은 하루해가 어떻게 지는지도 모르게 빠르게 흘러가 버렸다.

처음 시작해서 책 한 권의 편집 작업을 끝낼 때까지의 상쾌한 출발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수정 작업을 하는 일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다.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었다. 일과가 끝나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 내 짜증스러움을 내색할 수는 없는 일, 그렇게 서로의 힘겨운 감정들을 어르고 달래려 함께 식사도 하고 어느덧 한배를 탄 식구가 되어 좋은 책이 출판되기를 바라는 동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여러 번의 심의 과정을 거치는 지루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출판이 확정되어 인쇄를 앞둔 무렵에는 흰눈이 속복이 내리는 겨울의 중간쯤에 와 있었다. 유난히 흰눈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겨울이다.

물론 그 시간에는 또 다른 업무로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말이다. 편집 디자이너의 업무가 늘 그렇듯 여름을 지나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 힘겨운 일상의 끝이 보일무렵 막 인쇄된 보안 표지의 딱딱따끈한 체육 교과서가 표정없이 지쳐 있던 내 얼굴을 환하게 웃음짓게 했다. 마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얻은 청순한 아기의 숨결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보통 이렇게 제작된 교과서는 교육감 인정도서가 되어 도내 몇 개 학교에서 채택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만족인 것이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그 이듬해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보통 여름철은 비수기라 한가롭게 보내게 마련인지라 그런 일상을 즐기고 있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청명함이 느껴지는 가을 하늘과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여기저기 주렁주렁 나뭇가지에 매어 달린 콩알만한 작은 크기의 이름모를 열매들 그 자체 만으로도 풍성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결실의 계절이었다. 저마다 열심히 산 삶의 결과물일 것이리라.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에서 체육 교과서를 주문한다는 내용이었다. 또다시 전화벨이 “따르릉” “따르릉” 계속 이어졌다. 역시 체육교과서 주문 내용이었다. 전국에서 내가 만든 교과서를 사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는 것이다. 집필진과 회사, 서로 욕심없이 열정만 가지고 만들었던 교과서가 소위 대박을 냈다.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역사 문화적 접근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스포츠 스타도 교과서에 등장하기에 더욱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온 건 아닌지 하는 평을 나름 해본다.

이렇듯 ‘스포츠 문화’는 ‘고생 끝에 낙’이 되어 좋은 결실로 보답을 해주었다. 내 앞에 예상치 못하게 나타

난 봄날 울긋불긋 빛났던 철쭉의 찬란함처럼 환하게 말이다.

책읽기를 즐겨하는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이해가 안 되는 책은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되네요”

“그래, 바로 그거야. 교과서도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쉽단다.”

“엄마 교과서는 재미가 없어요.”

수업시간보다는 사서 선생님의 칭찬이 좋아서 학교에 새벽 같이 등교하는 딸아이의 말이다.

‘그럼 교과서도 재미있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교과서라는 틀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또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재미있고 즐겁게 교과서를 펼쳐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주말 이른 아침 잠결 밴드의 알림음에 눈을 떴다. 스마트폰 화면에 ‘혹시 내가 기억하는 ○○ 아니니? 단 짝이었는데 얼굴 올리면 좋으려만.’ 주말 이른 새벽 잠이 확 깼다. 내게 대화를 신청한 보령이는 개명을 했고 얼굴이 너무 예뻐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보령이가 맞나? 확신이 없어서 다시 물었다.

“사창동 살던 양보령 맞아?”

“응. 나 보령이야 개명했어.” 야호! 찾았다. 얼마나 보고팠던 얼굴인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득문득 생각나고 소식이 궁금했던 친구이다. 그것도 보령이가 먼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연락을 해오다니. 주말 아침 큰 선물하나를 받은 느낌이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어디 산다는걸 확인한 후에 만나자는 약속까지 했다.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중학생이 된 나는 버스를 타고 등교를 했었고 집으로 가는 길이 같았던 보령이와 나는 버스 안에서 청소시간에, 시험이 끝난 후에,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무심천변을 걸으며 재잘재잘 수다를 떨곤 했었다. 대부분 공부와 성적에 관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한다. 물론 나도 그랬지만 공부 욕심이 많았던 보령이, 그때만 해도 학원을 다니는 일은 거의 없었고 교과서와 참고서가 다였던 시절이었다. 쉬는 시간에는 수학문제를 서로 하나씩 나누어 풀며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교과서를 사이에 두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다. 그때 그 시절 교과서는 우리에게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갓 중학생이 된 딸아이를 보며 그 어느 때보다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그 옛날 내가 새 교과서를 받고 흰달력으로 곱게 곱게 싸서 소중히 다뤘던 그 때의 설레임과 두근거림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가 만든 교과서가 그 누군가의 가슴에 설렘과 작은 떨림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또 어느 교정에서인가는 재잘재잘 수다로 또 다른 학창 시절의 우정을 쌓아가고 있겠지. 그 중간에 교과서가 다리 역할을 한다면 더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방학도 반납하고 교과서 작업에 정열을 쏟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번 방학은 부디 힐링의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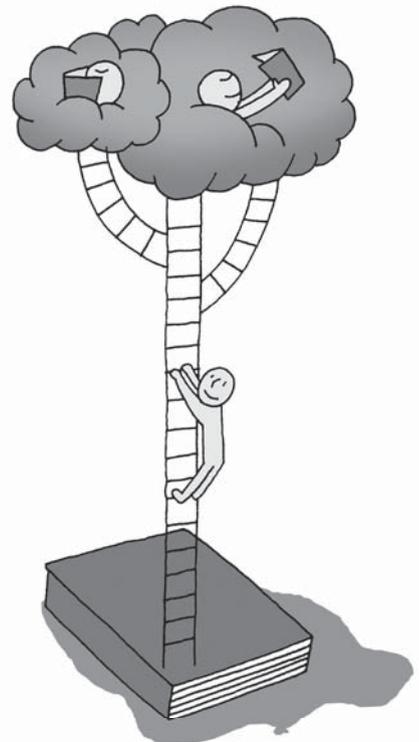
나 또한 길고 긴 터널을 빠져나온 흥가분한 기분으로 아메리카노의 진한 향에 취해 재잘재잘 학창 시절을 추억해 보리라.

청소년들이여! 교과서가 나오기까지 고생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부디 교과서를 통해 개인

적 발전과 배움, 성장을 통해 삶의 중심에서 멋진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고 바란다. 

필자소개

현재 (주)대명사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문화', '스포츠 과학' 등 여러 권의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였다.



오늘의 교과서 출판인

두산동아
정진욱 사장



▶ 두산동아 교과서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와 함께해 왔습니다.
두산동아 교과서에 대해 소개 해 주십시오.

두산동아의 교과서 발행 역사는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9월에 창업한 동아출판사가 두산동아의 전신입니다.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면서 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국어 교육을 위해 1945년 ‘신생국어독본’을 첫 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과정이 체계화 되기 이전에 발행된 교과서 간행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954년부터 적용된 1차 교육과정기에 검정교과서 21종을 출원하여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2013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수많은 교과서를 발행해 오면서 교과서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다는 기업의 경제적 목적보다는 학생들과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는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의 학교 현장은 스마트 환경이 강화되고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시대적 변화의 요구를 겪으면서 2013년부터 적용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혁신적으로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체제 자율화와 디지털 교과서 도입으로 교과서에는 더욱 많은 학습 자료가 수록되고 교과서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가 최초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교수-학습 활동에서 요구되는 콘텐츠의 종류와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로 대응하는 것도 교과서 발행사의 몫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두산동아는 서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도 최고의 품질로 개발하여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두산동아의 교과서는 회사 사업 운영 철학의 근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 어떤 출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지 소개 해 주십시오.

두산동아 경영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산동아 교과서는 1945년 신생국어독본을 교과서의 효시로 하여 매 교육과정기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초·중·고등학교용 각종 검·인정 교과서를 개발 및 보급해 왔습니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온라인 교사용 수업 지원 서비스인 ‘DoUclass(두클래스)’를 개발하여 교사에게 많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 세대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는 ‘동아전과’, ‘수련장’, ‘완전정복’ 등 수많은 참고서를 출간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참고서와 사전류를 출간하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사업으로는 ‘동아스쿨’, ‘백점수학교실’을 통해 학원 및 공부방에 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글로벌 교

육 콘텐츠인 <Time To Know>와의 제휴를 통해 ‘DOOIT English (두잇잉글리쉬)’라는 선진화된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 정보화에 앞장서기 위하여 축적된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바일 및 다양한 디바이스에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동아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교육 문화 콘텐츠로 고객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철학”을 통해 고객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교과서 전문 편집인 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산동아의 인재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두산’을 만들어 가기 위한 두산만의 고유한 기업 철학인 ‘두산way’를 바탕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끊임없이 올라가는 눈높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 공정함과 따뜻함을 기반으로한 진정한 팀워크, 상하좌우 열린 소통, 현명한 근성,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중요한 것의 해결에의 집중이라는 기질적 특성을 양성하게 됩니다.

업무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교과서 개발 단계에 따른 편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 분석, 교과서 분석, 사용자 조사, 질 높은 교과서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TFT 활동을 통해 편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장 조사 교육 및 실행을 통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편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양한 TFT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교과서 디자인 및 사용자를 연구하고, 자문교수 그룹을 운영하여 교과서 디자인의 다양성과 퀄리티 제고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대학 등 외부 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디지털 학습 콘텐츠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발행사 대표로서 특별히 고민한 점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의 특징은 현장과의 괴리감을 없애기 위해 학교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이전 교육과정까지는 대학교 교수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였으나, 새로운 교과서에는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의 참여를 크게 늘렸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 시수에 맞게 단원의 내용과 수준을 구성하여, 교사의 강의 및 학생의 이해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교수-학습 자료를 직접 개발함으로써 수업과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두산동아는 오래 전부터 교과서를 개발할 때 학교 현장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두산동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디지털 교과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체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2013년 5월 15일 미국 샌디에고에서 열린 국제이러닝협회 경진대회에서는 두산동아 과학 디지털교과서가 <디지털콘텐츠 플랫폼>부문의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두산동아는 학교의 스마트교육 환경이 빠르게 정착되어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교과서의 교실수업 지원 시스템인 두클래스를 구축했습니다. 두클래스는 새롭게 선보인 웹 기반의 교실수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원하고, 철저하게 교사들의 수업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습니다. 교사가 직접 수업 교안을 편집해 구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평가문제지도 난이도에 따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영어 스마트 교과서는 기본·보충·심화 수업모델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맞춤형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두산동아는 교과서를 새로 개발하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학교 현장에서 요청하는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콘텐츠를 교과서 및 지도서에 담기 위해 노력했고, 두클래스를 통해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어떤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연구(2014)에 의하면, 교과서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편찬 참여자, 검인정 심사 참여자, 교과서 정책 관계자 100여 명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습량 과다,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미흡, 교과서 구성체제의 획일화, 내용 수준 및 범위의 적절성 미흡, 학습에 대한 흥미유발 부족, 학습활동 및 평가의 다양성 미흡, 내용 오류 및 공정성 미흡 순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된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고, 이 좋은 교과서를 교수-학습 현장에서 잘 활용해야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이자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교수-학습 현장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육적 효과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좋은 교과서의 활용에 대해서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학습 또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때 효과가 좋아지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교과서에 담긴 학습량이 적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서의 핵심 성취 기준이 적정해야 합니다. 둘째 스스로 복습하고 예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종류의 학습 활동 및 평가가 담겨 있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산동아는 교육과정 및 학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을 교과서에 반영하여 개발해 왔으며, 개발된 교과서의 품질에 대한 평가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에서 제시한 문제와 교과서의 활용적인 측면들을 고려하여 향후 개정되는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도 적극 반영하여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 최근 우리나라 교과서 정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과서는 한번 개발하면 해당 교육과정 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교과서는 교

육과정 개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개발 준비를 하게 되며, 일반 학습도서와 달리 장기간 많은 비용을 투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과서 개발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시기에는 검·인정 교과서 구분의 취지를 살리면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교과서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 집단 간에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정책의 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교과서의 질을 높이려면 현행 교과서 개발 방식이 적합하지를 육과정 개정 연구 시기에 짚어보아야 하며, 우수한 인력이 교과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검인정 심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교과서 선정 및 사용 단계에서는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확보하고, 심사 결과와 교과서 선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교과서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과서 개발에는 많은 자원이 투입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투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교육 당국이 펼쳐 주어야 합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과서 가격에 대한 이슈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는 교과서를 만든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보다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 이윤을 더 좋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재투자하는 선순환적 교과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진정으로 교육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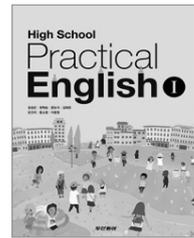
▶ **미래의 교과서는 지금의 교과서와 많이 다를 것입니다. 미래의 교과서 모습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통 미래를 생각할 때 기술과 산업의 발달과 연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교과서를 상상할 때에도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된 교과서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을 반영하여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종이에서 단말기로 바뀌는 단순한 외형적 차원을 떠나,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교수-학습과정의 가장 중요한 도

구로서 미래형 교과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교과서는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교육과정의 변화와 연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변화의 흐름은 첫째, 교사중심의 전달식보다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방식으로, 둘째, 교과 지식보다는 실생활 속에서의 경험 중심으로, 셋째, 개별 학문의 계통보다는 범학문적 통합 중심으로, 넷째, 전체 통일이나 평균을 지향하기보다는 개별화와 맞춤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욱 공고해질 전망입니다.

두산동아는 이런 교육의 변화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래 교과서를 연구하고, 개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과정 속에서 교사가 좋은 수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제1차 학습자료가 됨과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경험중심적, 통합적, 개인별 맞춤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과서가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라는 외적인 형태로 구분하지 않는 미래 교과서이자 좋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DOOSAN



이 책을 보면 그분이 생각난다

김 현 진

인천 해송초등학교 교사

2009년 3월, 인천의 한 도서지역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섬마을 선생님’이 된 것이다. 학교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지만 가족들과 헤어져 지내야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도시에 비해 때 묻지 않은 아이들, 바다 냄새... 맑은 공기를 마시다 보니 도시에서 느껴볼 수 없는 여유를 느끼게 되어 이곳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시간에도 소인수 학급이다 보니 아이들에게 조금 더 성의를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건 짧은 생각이었다. 복식학급에서 두 개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다보니 도시 학교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교과진도도 다 나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사교육이 없는 곳이어서 학교교육이 전부인데 그렇게 수업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을 하고 시킨 후에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였다.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간단하지만 실천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고민이었다.

교재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재구성을 해야 하는데 도시학교 수업공개에서 실시했던 동일학년 동일교과의

재구성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밤이면 배가 끊겨 왕래가 단절되는 고요한 섬 관사에서 나는 밤마다 나름의 교육과정 재구성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수업실기 우수 지도안을 살펴보기도 하고, 수업 관련 커뮤니티에도 가입하였다. 그러다가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전문성을 가진 어느 교장 선생님 블로그를 통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연구>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임용고시 때 공부한 것이 전부였지만, 최근의 교육과정 동향 및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교육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고 더 공부해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었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가져야만 하는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해 내가 너무 문외한이었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다닐 때 교재조차 잘 사지 않던 내가 교직 10년차가 되어 교육과정, 교육학 서적들을 사들여 읽게

된 것이다. ‘주제 중심’ ‘블록타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 탐방’ 프로젝트, ‘우리나라 국토 만들기’ 등의 교과 간, 교과와 비교과간의 작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계기도 만들었다.

그렇게 섬 근무를 마치고 다시 도시학교로 돌아와서 학교 행정업무는 물론 한 교실 30명의 아이들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교무실 책상 위에 교육청으로부터 온 여러 장학자료들과 우편물들 사이에서 누런 봉투를 보게 되었다. 섬에서는 받아보지 못해 홈페이지를 통해 PDF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교과서 연구>지였다. 그로부터 학교로 오는 <교과서 연구>지는 미안하지만 늘 내 차지가 되었다. 우리 집 책장에는 <교과

서 연구>지가 여러 권 가지런히 꽂혀 있다. 교육과정 연구학교에서 근무하며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도 가졌고, 교육과정 연수 강사 등의 활동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교육과정에 관심 갖게 만든 계기가 된 이 책... 이 책을 보면, 이 책과의 인연을 맺어준 그분이 생각난다.

2014년 4월, 벚꽃이 아름답게 피던 날... 학교업무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정신없던 날... 그날도 교무실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이 책의 누런 봉투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웠다. 그리고 또 그분이 생각났다.



알림 우리 ‘교과서 연구지’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교과서 연구’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느낀 특집기사 또는 다른 원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세요. 담당자의 이메일(editor@textbook.ac) 또는 연구재단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연구지 제안에 접수된 의견 중에서 독자의 소리에 게재되면 교과서 연구지를 1년간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고등학교부 금상

내세(來世)의 동반자(同伴者)



박 서 정

인천 명신여자고등학교

“컴싸가 뭐다냐? 무신 말여?”

“컴퓨터 싸인펜! 영어.”

“그게 뭐디?”

“시험 볼 때 답에 표시하는 거요.”

“컴싸라고 말하면 살 수 있당가?”

“할머니 제 것 드릴게요.”

“위메 우리 강아지 고맙네.”

저와의 나이 차이가 무려 50년이 넘는 할머니는 새내기 여중생입니다. 매일 숙제를 하고 가방을 챙기며 시험을 걱정하는 모습은 모범적인 10대 소녀 같습니다. 할머니의 입학은 우리 집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동생이 한글을 익힐 때처럼 화장실, 냉장고, 현관, 베란다, 장롱, 벽 등에 어김없이 낱말 카드와 한글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위에 영어 단어까지 더해져 우리 집의 벽은 점박이가 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듬거리며 알파벳을 외우는 할머니에게 단어는 멀지만 남동생의 수고로 이미 문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할머니! 에그머니나 따라해 봐.”

“에그는 계란이고, 머니는 돈이야”

“샤타 마우스는 문 닫으니까 입닫고 조용히 하라는 거야.”

“사진 찍을 때는 치즈! 그런데 가운데 손가락만 위로 올리면 욱이야.”

동생의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할머니는 따라 하십니다. 엄마가 말려도 할머니는 내가 좋으니 됐다시며 동생 편을 듭니다.

배움이라는 것! 공부라는 것! 꼭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할머니의 변화를 반가워 하십니다. 출근하시면서 할머니의 점심상을 챙겨 두어야 했는데 급식을 드시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엄마의 퇴근 시간에 낮잠을 주무시니 저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동생에게 숙제를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영어책을 3과까지 읽을 수 있으면 동생이 갖고 싶은 겨울용 다운 파카를 사준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간절함 때문인지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 강아지가 할머니 가르치려 애쓴다고 열심히 따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좋게 보아야 할지 바로 잡아야 할지 저는 결정을 할 수 없지만 아빠는 할머니가 즐거워하시니 지켜보자고 합니다.

할머니가 공부에 열의를 갖게 된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부터입니다. 춘향고를 남원에서 만난 두 분은 할아버지의 편지글을 읽지 못한 할머니의 문맹으로 초혼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팔형제의 장녀인 할머니는 집안일과 동생들을 돌보느라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글을 익힐 기회조차 없었기에 약속장소에서 바람을 맞으신 할아버지가 다른 분과 결혼을 했고 오래가지 못해 파경을 맞아서 우리 할머니와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글을 모르는 할머니는 당신의 호적등본을 볼 줄 몰라서 그동안 할아버지의 조강지처임을 자부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고모할머니가 위로한다고 물어버린 진실을 말한 게 화근이 되었고 할머니는 검정고시로 익히신 한글 실력으로 할아버지 유품에서 이제는 잊혀져 가는 호적등본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할아버지 49재 날 할머니는 참 많이 우셨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니 물어버리라는 아빠의 권유에도 할머니는 죽은 영감이 미워서가 아니라 못 배운 한을 떨쳐 버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습니다.

“애비야! 내가 고생해서 널 갈쳤으니까 이제 나도 조계 배워야 쓰겠다. 참말로 공부가 허고잡다.”

도시락을 싸갖고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할머니는 3년 만에 중학교 입학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보고 돋보기를 의지하며 노력하신 성과였습니다. 관절염으로 힘드신데도 매일 학원에서 수업할 교과서와 교재들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고생하셨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을 확인하고 기뻐하신 할머니는 “이제 황천길가서도 지옥인지 천당인지 글 읽을 수 있는게 오늘 죽어도 암시랑토 안혀. 전에는 글을 못읽는게 죽는 것도 겁났는디 이제 무신게 없다.”라고 하시며 개근을 목표로 근처 학력인정 학교에 교장선생님보다 더 많은 나이의 학생으로 성인반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배움의 근원은 교과서입니다. 하루 5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소리 내어서 교과서를 읽고 연습장에 씁니다. 자습서를 사드려도 괜한데 돈 썼다고 역정 내시고 글씨가 작다는 이유로 펼쳐 보지 않고 오로지 교과서와 열애 중입니다. 영어를 시작한지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영어책 1과를 외우셨습니다.

“아이 에미가 보이다. 유아가 걸레여.”

할머니의 영어책은 더 이상 책이 아니었습니다. 손잡는 부분은 완전히 닳아져 버렸고 영어 밑에 깨알 같은 한 글이 써져 있습니다.

‘I am a boy. You a girl.’

아이 엠 어 보이 유 아 걸

남동생 솜씨가 틀림없지만 그것을 외우신 할머니의 노력은 연습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을 사드리려는 아빠의 설득에도 8각형 밥상이 좋았던 할머니는 방석에 정좌로 앉아서 교과서를 90도 각도로 잡고 읽습니다. 그 옆에서 맛장구 치는 남동생이 항상 할머니를 채근합니다. “오케이 할머니 최고.” 발음, 억양, 끊어 읽기 등이 모두 무시되지만 효자손으로 방바닥을 두드리는 손자의 훈수에 신이 난 듯 더욱 큰소리로 읽습니다. 동생은 겨울이 되기 전에 다운 점퍼를 살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집 아래층에 새로운 분이 이사를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근처 초등학교 원어민 선생님입니다. 월세도 받고 나와 동생의 영어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신 엄마의 계산이 작용했습니다. 부족한 실력과 발음 때문에 저는 인사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대화를 하십니다.

“밥 먹었어? 조야”

“I'm hungry.”

“김치, 피리셔츠”

“Thank you!”

할머니의 마음이 통해서일까요?

“나 죽으면 이 영어 교과서 관에 넣어다오. 살아서 영어 쓸 일은 없지만 heaven가서 계속 영어 공부 공부 할랑께.”

할머니에게 교과서는 내세의 동반자로 지금부터 챙기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할머니의 학업에 대한 열의가 저를 자극합니다. 내세에서도 영어책과 동반자를 하시려는 할머니의 향학열을 배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고등학교부 은상

교과서 생각 열기



김진솔

포항 세명고등학교

교과서를 안본지 벌써 열 달이 다 되간다.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입시에 치이는 나는 ‘풀어도 끝이 없는’ 연계교제와 문제집만으로도 벽차서 교과서를 읽어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매일이 전쟁같이 각자에게 치열하고도 고독한 시간들. 그런 시간이 흐르는 고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의 모습이란 말 그대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유리 장벽이 존재하는 듯, 서로 다른 부스 안에 들어앉은 모양으로 굴러간다. 선생님은 시간표 속 담당과목 수업을,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한 친구는 수면을,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떨어진 친구에게는 수학시간이 된다. 이렇게 서른다섯 명의 제각기 다른 흐름이 영겨 있는 공간이란 말없이 산만하고 이 유없이 붕 뜨기 마련이다.

하얀 것은 종이이고, 까만 것은 글씨인 삭막한 흐름을 따라다가 보면 머릿속에는 문제집의 문제 하나하나가 판본 인쇄기처럼 찍힌다. 선생님의 어떤 고함도 또 어떤 농담도 이미 찍히고 있는 판의 흐름을 바꾸기엔 부족하고, 자고 있는 기계를 재정비해 가동시키기란 더 힘이 든다. 3년 동안 시험기간이면 항상 경험했던 모습들이라 적응이 안 되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은 없다. 다만, 수험생이 되면서 시험 기간이 1년 365일이 되었다는 것과 교과서를 대신해 선생님의 손에도, 자는 친구의 이마밖에도, 책상 위에도 문제집이 있다는 것만을 뻔다면 말이다.

사실,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자고 있는 기계를 저절로 깨우고 다른 판을 찍고 있는 기계들은 모두 같은 내용을 머릿속에 새기도록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하나 있다. 이 특별한 공구는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문학시간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교과서 속 ‘생각열기’이다. 대학 진학의 반환점을 돈 시기. 몸도 마음도 고단하게 지쳐가던 우리는 정말 고장난 기계가 ‘덜 거덕거리는’ 그런 모양새로 꾸벅꾸벅 졸거나 혹 다른 누군가는 책상에 퍼질러져버린 나른한 5교시 후 쉬는 시간을 막 보냈을 때였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지만, 식곤증에 허덕이는 19년산 고철덩어리들을 갖 니스 칠해 반짝반짝한 새 기계처럼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베테랑 선생님께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책상을 치시고 이름도 불러보셨지만 하나를 깨워두면 하나가 삐걱되고 또 하나를 고쳐두면 하나가 없어졌다. 선생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갑자기 목청을 돋우어

시 낭송을 하셨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다들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안이 병병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시를 진지하게 낭독하시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다. 시 인줄로만 알았더니 ‘김범수’ 작사·작곡, 가수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라는 노래였다. 그날은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는 단원을 배울 차례였고, 그날의 학습 목표인 ‘시의 운율’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생각 열기’라는 항목으로 교과서에 수록된 한 부분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것이었다. 낭독을 끝내고는 운율이 잘 형성된 시는 노래와 같은 운율을 가진다며, 시와 노래 모두 운율을 가진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는지 한사람씩 발표해 보자고 하셨다. 유명한 랩의 일부를 드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슬픈 발라드 노래를 읽어주는 친구도 있었다.

친구들이 한명씩 노래 가사를 시를 낭송하듯 낭랑한 목소리로 낭독하니 자고 있던 친구들도 하나 둘 식 익숙하지 않은 소리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어느 덧 모두 일어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들 오랜만에 발표가 쑥스럽기도 하고, 평소 좋아하던 노래 가사를 음미하며 국어 공부를 하니, 색다른 느낌인 듯 조금은 상기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많은 노래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god의 ‘어머님께’였다. 친구들은 모두 웃음보가 터졌고, 선생님은 그 노래의 가사를 칠판에 옮겨 적어 음보, 음절, 운율, 각운 등의 개념을 기발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다. 44조의 4음보 율격이라고 하셨던가. 항상 헛갈리던 개념이었는데 잘 알려진 대중가요로 공부를 하니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날로 우리는 그날 배울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각 열기’를 꼭 챙겨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 열기’에 제시된 다양한 시각 자료들은 본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작품과 관련된 삽화라든지, 사진을 제시하고 그 작품의 시대상이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문학작품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루는 ‘프레임’이라는 제목으로 창문 밖에 또 다른 이젤을 두고 그 이젤 안의 그림을 찍은 사진이 제시되었는데, 그 그림의 제목이 ‘프레임’인 이유를 서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적

이 있다. 발표를 하는 친구들 개개인의 생각은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기발한 것들이었고 그 발표를 통해 서로 다른 친구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은 이런 다른 관점이 문학을 수용하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 열기’를 통해 판본 인쇄기처럼 그저 눈으로 책속에 내용을 머릿속에 찍어내는 기계적이고 주입적인 공부 대신 고개를 들고, 생각을 열어 스스로 생각하는 공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문제집에 적혀있는 ‘해설’이 아닌 문학작품을 나 나름대로 ‘감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흔히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주입식, 진학만을 위한 기계적 교육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속에서 스스로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듯 했다. 누구보다 생기 있고, 누구보다 열정적이었던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시한부 인생인 내가 수많은 문제들을 머릿속에 옮겨 찍다가도 가끔, 선선했던 2학년 어느 가을날의 문학 시간이 그리운 이유는 아마도 그 때문일 것이다.



고등학교부 동상

양을 찾는 방법



김수현

안동여자고등학교

쿵. 마음 한 구석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시험지를 들고 있는 손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시험지에는 붉은 채찍 자국이 마구 나 있었다. 눈을 감아도 그 자국들은 가슴 속으로 난입하여 고통을 안겨주었다. 감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가장 수준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치르게 된 첫 번째 중간고사는 내게 지독한 현실을 선사했다. 처음 받아보는 점수에, 내 수준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괴감에 나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게다가 고등학교라는 곳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0교시부터 8교시까지 보충수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진도 나가기에 급급했다. 모르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고 달렸다. 알아듣지 못하는 학생들은 무능한 사람으로서 도태 되어졌다. 겨우 이해하고 나면 어느새 저 멀리 달려 나간 진도를 보며 허탈감과 무력함이 든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2학년이 되자 문과에서는 수학 포기자도 생겼다. 그것을 보면서 나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독 안개처럼 이곳저곳에서 물씬물씬 나를 덮쳐 왔다. 특히 외국어의 어휘량도 알아 포기의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제까지 공부해 왔던 것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암기력과 이해력의 부족함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으로 극복했는데 이대로 물러서기는 억울했다.

그래서 택하게 된 것이 교과서였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교과서로 먼저 공부하는 것이 너무 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학교 때까지 상위권의 성적만 누리왔던 내게 교과서는 수준 낮은 책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다. 수학은 쉬운 문제만 있고, 영어는 쉽지만 한 단어가 있는 그런 책.

막상 펼쳐 본 교과서는 정반대였다. 수학 익힘책은 위밍업을 제외하고는 수준 높은 문제들이 곳곳에 있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영어도 단어가 쉬워 보였으나 독해를 하려고 하니 모르는 단어들이나왔다. 이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기본이라는 교과서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문제집의 문제만 풀고 있었던 것이다.

내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차근차근 찾아보았다. 수학의 경우 해당 문제의 핵심 개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영어는 역시 핵심 어휘의 암기 부족이었다. 교과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으니 그 역시 성적이 썩 좋지는 못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교과서만 공부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놀랍게도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학교 성적은 거의 비슷했다.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 등급에 비해 더 높았기에 늦어서야 깨달았던 것이다.

다른 아이들보다 몇 년은 늦게야 교과서를 펴고 공부하기 시작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생각을 할 때가 늦지 않은 때이기도 하다. 남들보다 늦기에 몇 배로 힘들지만 교과서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러자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적도 조금씩은 오르기 시작했다. 성적이 조금 오르자 그것에서 오는 성취감은 적지 않았다. 성취감은 힘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해피에너지가 되었다.

‘망양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갈림길에서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렵다는 뜻이다. 나 역시 예전에는 여러 갈래로 나 있는 공부의 길에 우왕좌왕 했다. 그 사이에 내가 데리고 가야 할 양은 어느 길로 먼저 가 버렸다. 갈림길 앞에서 나는 점점 초라해져 갔다. 그 와중에도 양은 제가 선택한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갈림길 앞에서 양이 되돌아오는 요행을 바라고 있지 않겠다. 어느 길을 선택해도 포기라는 길을 제외하고는 양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양을 찾는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은 오직 ‘교과서’라는 한 갈래의 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찌면 나는 그 길을 끊임없이 달림으로써 양보다 더 먼저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길이 평탄함만을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갈길이 나올 수도, 막막한 오르막만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무수한 담금질을 거친 쇠가 명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오늘도 나는 끊임없이 교과서라는 길을 달려가고 있다. 잃어버린 양을 되찾기 위해서이다. 양을 찾는 방법을 알았으니 남은 것은 찾고자 하는 내 의지 뿐이다.

벌써부터 잃어버린 양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만 같다. 마구 달리는 내 이마에는 뿌듯한 땀방울이 맺혀 있다. 함박 미소가 걸린 채로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교과서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교과서 개발 연수 안내]

우리 재단에서는 전국 초·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중에 교과서 개발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과정 소개

- 과정명 : 교과용도서 개발 전문가 양성 과정(전문성 향상 과정)
 - ※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년도 특수 분야 연수 기관 지정(서울교육 2014-482)
- 연수종별 : 직무연수
- 연수 대상 :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연수 시간 : 30시간(인정 학점 : 2학점)
 - ※ 최저 이수 기준 시간 : 24시간, 80% 이상 출석(성적 산출 안함)
- 교과과정 : 교과서 정책·제도와 법령, 개발 방법, 편집 및 인쇄 등

□ 기간 :

구 분	기 간	시 간	인 원	신청 마감
제 1 기	2014. 7. 28 ~ 8. 1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2 기	2014. 8. 4 ~ 8. 8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3 기	2015. 1. 5 ~ 1. 9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제 4 기	2015. 1. 12 ~ 1. 16	10:00~17:00	40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 직무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2651-1982)로 접수
- 연수비 납부
 - 연수비 : 7만원
 - 납부 방법 : 해당 과정 신청 마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
(신한 140-009-109202, 예금주 :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선종근)
 - ※ 연수비 환불조건 : 연수 시작 10일 전까지 연수취소(포기) 신청서 제출한 자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교과서 개별구입안내

2014학년도 교과서 개별 구입 안내

※ 2014학년도에 새로 보급되는 교과용도서의 판매 시기는 2014년 6월 현재 미정입니다.



□ 교과서별 구입처

교 과 서		구입처	전화번호
국정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국어활동, 듣기·말하기·읽기, 쓰기 포함) • 과학(실험관찰 포함)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수학익힘책 포함) • 사회(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포함) • 도덕(생활의길잡이 포함)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과목(학교, 봄, 가족, 여름, 나, 이웃, 가을, 겨울, 우리나라)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계, 수산·해운계 	(주)미래엔 textbookmall,mirae-n.com 1800-88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계, 농업계, 상업계, 외국어계 	(주)천재교육 www.chunjae.co.kr 1577-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실업계 	(주)지학사 www.jihak.co.kr 02-330-5302
검·인정	초등 중등 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교과서 이외의 검·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일부 제외) 	(사)한국검인정교과서 www.ktbook.com 02-3663-5409~12

□ 서울지역 직매장

(사)한국검인정교과서 직매장 - 검·인정교과서 전문매장(일부 인정도서 제외)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7길 3 (당산동6가) 다옥빌딩 별관 2층 ☎ 02-3663-5409~12
- 지하철 : 2호선 당산역 1번, 9호선 당산역 13번 출구에서 롯데리아, 스타벅스 사이 골목 30m지점 (동양생명 2층)

(주)미래엔 직매장 - 초등학교용 국정교과서만을 판매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주)미래엔빌딩 1층 ☎ 02-3475-4097
- 지하철 : 7호선 논현역 5번 출구에서 직진 도보 5분소요

각 지역별 교과서 지정 판매서점

지역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광화문)	02-397-3551~2	국·검·인정
	서초구 교보문고(강남)	02-503-0313	국정
	송파구 교보문고(잠실)	02-2140-8821	국정
	양천구 교보문고(목동)	02-2062-8801	국정
	영등포구 교보문고(영등포)	02-2678-3501	국정
	종로구 영풍문고(종로)	02- 399-5625	국·검·인정
	성북구 영풍문고(미아)	02-2117-2880	국정
	영등포구 영풍문고(영등포)	02-6137-5254	국정
	동대문구 영풍문고(청량리)	02-3707-1860	국정
	노원구 그랜드문고	02-938-1065	국정
	서초구 서울문고(센트럴점)	02-530-0718	국·검·인정
	강남구 서울문고(코엑스점)	02-556-6002	국정
	강동구 예림문고	02-477-8600	국정
	도봉구 예일문고	02-995-5206	국정
	성동구 경일사	02-2296-7671	검·인정
	구로구 (주)리브로(구로점)	070-4726-2841	국·검·인정
	동대문구 성현문고	02- 967-3838	검·인정
	용산구 (주)대교문고	02-2012-3544	국·검·인정
	노원구 (주)노원문고(중계점)	02-2091-0633	국·검·인정
강동구 동북문고	02-477-8200	국·검·인정	
관악구 (주)북선커뮤니케이션	070-4700-1975	국정	
중랑구 관악도서	02-2007-7802	국정	
부산	금정구 영풍문고	051-590-8300	국정
	부산진구 교보문고	051-806-3501	국정
	부산진구 영광도서	051- 816-9500	국·검·인정
	사하구 문학서점	051- 204-0465	국·검·인정
	사하구 예림서적	051- 203-3383	검·인정
	중구 남포문고	051- 245-8911	검·인정
	중구 문우당서점	051-241-5555	국정
	사상구 태학도서	051-313-1718	국정
해운대구 영재서적	051-703-0708	국정	
대구	중구 영풍문고	053-428-6700	국정
	수성구 (주)세원출판유통(범어점)	053-423-0517~19	국·검·인정
인천	중구 (주)대한서림	032-764-7337	국·검·인정
	부평구 부평문고	032-529-0077	국정
광주	서구 영풍문고	062-364-0210	국정
	동구 종합도서	062-222-4354	국·검·인정
대전	중구 (주)계룡문고	042- 222-4600	국·검·인정
	서구 세이박스	042-611-8061	국정

지역별	상 호	전화번호	판매 도서			
경기	수원 의정부 안산 부천 구리 일산 평택 분당 광명 안양 성남 용인 수원 시흥 화성 남포	(주)경기서적 송문당 대동서적(주) (주)경인문고 동원서적 정글북 평택문고 리브로 일지서적 교보문고 베스트북 수지문고 중원문고 영풍문고 한가람문고 더북스삼성 공손서점 열린문고	031- 248-6300 031- 846-2666 031- 406-6666 032- 613-2197 031- 563-4621 031- 922-5000 031- 651-9204 031-701-2800 02-2613-2744 031-466-3501 070-7570-5172 031-265-4031 031-736-2600 031-267-5555 031-404-0161 031-8015-4451 031-703-7279 031-982-2007	국·검·인정 국·검·인정 국·검·인정 국·검·인정 국·검·인정 국·검·인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강원	춘천 동해	교학사 제일서점	033-244-0044 033-521-3131	국·검·인정 국정	
	충북	청주 충주	유신상사 이학사	043-252-5945 043-847-3493	국·검·인정 국정	
		충남	천안 천안 천안	열린문고 천안서적 국민도서	041-573-0827 041-576-1545 041-558-0004	검·인정 검·인정 국정
	전북		전주	흥지서림	063- 288-5311	국·검·인정
	전남		순천 목포	중앙서림 책사랑문고	061-723-9902 061-279-2504	국·검·인정 국정
		경북	포항 경주	학원사 성암교재사 현대서점	054-249-3396 053-811-8222 054-742-4885	국·검·인정 국정 국정
	경남		창원 김해 마진	그랜드문고 창원서적 근비도서 영풍문고 대양서적	055- 283-2848 055-282-1544 055-343-7894 055-240-5690 055-741-2835	검·인정 국정 국정 국정 국정
			제주	제주 제주	탐라도서(주) 현대서점	064-755-3335 064-748-1177



교과서 연구지의 발간에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 분야

<현장교육>, <논단>, <단상>, <제언>,
<교과서 편집자의 변>, <독자의 소리>

◎ 교육과정과 교과서 관련 연구활동.

- 교과 운영과 교과서 활용 사례 연구 활동,
- 교과서와 관련된 제언 또는 단상,
- 기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보내실 곳 : editor@textbook.ac

문의전화

02-6206-6357 「교과서연구」 담당자 유순기



◎ 교과서 정보관 이용 안내

| 운영 개요 |

- 우리나라 교과서의 수집 및 보존
- 외국 교과서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편수 자료의 수집 및 보존
- 교육과정·교과서 제도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 교과서 관련 자료의 DB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교과서 관련 연구 단체 협력 체제 구축
- 교과서 및 교육과정 정보 제공
- 교과서 비교 전시회 개최 등

| 보유 자료 |

구분	국내	국외	계
교과용 도서	39,400	8,379	47,779
일반 자료	2,988	-	2,988
계	42,388	8,379	50,767

| 열람 시간 |

평일 | 오전 9시~ 오후 5시

점심시간 | 12:00~13:00 *토요일, 공휴일은 휴관합니다



02-2651-1953

www.textbook.ac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547 한국교과서연구재단 빌딩 4F

- 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 버스 : 3412, 462, 4312, 642, 9408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호두가 1등 이 되는 세계상

천재교육이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독도에 코끼리바위가 살아요.
코끼리바위가 팽이갈매기를 매일 씹어줘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독도엔 코끼리바위가 있습니다.
이제 독도도 교과서로 배웁니다.
우리의 독도는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하니까요.
독도 사랑도, 독도 공부도 우리가 1등입니다.

 천재교육



1948년

교과서 사업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었습니다.

2014년

교육, 출판 및 국내외 인쇄사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육출판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미래엔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본부
검정교과서, 참고서, 파사주논술



교과서사업본부
국정교과서, 인정교과서



출판사업본부
아이세움, 아이즐, 휴이넷, 북폴리오, 와이즈베리



인쇄사업본부
국내·해외인쇄, 디지털인쇄



계열사
전북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현대문학, 미래엔 에듀케어, 미래엔 인천에너지, 부흥개발
목적문화재단, 목정장학회